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產教育學科

任 宰 永

2020年 8月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指導教授 鄭 光 中

任 宰 永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年 8月

임재영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은 석	
위 원	정 광 종	
위 원	장 승 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0年 8月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resources and Utilization plan of Hallasan national park

Jae-Young Im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wang-Joong Jeong,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이론적 고찰	5
1. 경관의 개념	5
2. 경관자원의 개념과 유형	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3장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 특성에 따른 유형	13
제1절 한라산에 대한 인식과 한라산국립공원 현황	13
1. 한라산에 대한 인식	13
2. 한라산국립공원 현황	14
제2절 경관자원 특성 및 유형	18
1. 경관자원 유형	18
2. 자연경관자원 특성과 유형	19
3. 인문경관자원 특성과 유형	28
제3절 주요 탐방로별 경관자원 특성 및 유형	37
1. 탐방로별 경관자원 분석 의의	37
2. 탐방로별 경관자원	38
3. 탐방로별 경관자원 분석 결과	46

제4장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의 활용방안	48
제1절 경관자원 활용 현황과 문제점	48
제2절 경관자원 활용방안	52
1. 중요경관자원 선정	52
2.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53
3. 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탐방로 개설	54
제5장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2

표 목차

<표 1> 경관계획수립지침 내 경관자원 유형구분	8
<표 2> 농촌진흥청에서 구분한 경관자원의 유형	9
<표 3> 국립공원 경관분류 현황	10
<표 4>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16
<표 5> 한라산국립공원 연도별 탐방객수	17
<표 6> 한라산과 주변지역에서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사례	18
<표 7> 한라산국립공원 역사문화자원 현황	28
<표 8> 어리목탐방로 경관자원	39
<표 9> 영실탐방로 경관자원	41
<표 10> 성관악탐방로 경관자원	42
<표 11> 관음사탐방로 경관자원	44
<표 12> 돈내코탐방로 경관자원	45
<표 13> 산악박물관 운영실적	49
<표 14> 해설프로그램 운영실적	50

그림 목차

<그림 1>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15
<그림 2> 암매(돌매화나무)	21
<그림 3> 한라구절초	21
<그림 4> 노루	21
<그림 5> 큰오색딱다구리	21
<그림 6> 백록담분화구	22
<그림 7> 영실	22
<그림 8> 수악계곡	23
<그림 9> 탐라계곡	23
<그림 10> 물장오리	24

<그림 11> 어승생악과 어리목	24
<그림 12> 성판악탐방로 오름	25
<그림 13> 영실탐방로 오름	25
<그림 14> 탑케	26
<그림 15> 수행굴 추정 동굴	26
<그림 16> 백록샘	27
<그림 17> 이끼폭포	27
<그림 18> 안개에 싸인 백록담	27
<그림 19> 백록담이 보이는 일출	27
<그림 20> 용진계곡 현수교	29
<그림 21> 삼각봉대피소	29
<그림 22> 1970년대 수로, 5·16도로 톨 게이트 모습	30
<그림 23> 선작지왓 방목	31
<그림 24> 존자암	32
<그림 25> 천왕사	32
<그림 26> 왕관릉	33
<그림 27> 제주4·3사건 당시 백록담 주변 토벌대	33
<그림 28>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 평정기념비	34
<그림 29> 오히준 케른	34
<그림 30> 원점비	34
<그림 31> 고상돈 케른	34
<그림 32> 영실 오백나한	35
<그림 33> 사라오름	35
<그림 34> 백록담을 표시한 고지도	37
<그림 35> 어리목탐방로	39
<그림 36> 영실탐방로	40
<그림 37> 성판악탐방로	42
<그림 38> 관음사탐방로	43
<그림 39> 돈내코탐방로	45

【국문초록】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임재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정광중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가 획득한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1966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지정에 이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학술조사(자연자원조사 포함)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형·지질, 동·식물 등 자연과학분야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경관은 시각적 측면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핵심요소이다. 다만 시각과 더불어 촉각, 후각, 청각 등도 경관을 이해하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관의 개념을 ‘인간이 감각 및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인문적 환경’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에 있는 경관자원의 특성을 분석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연경관자원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인문경관자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이 확인 가능한 자연경관자원과 인문경관자원을 탐방로별로 분류해서 적시했다. 탐방로별 경관자원 분석은 향후 한라산국립공원 경관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첫째, 한라산국립공원지역 다양한 경관자원을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제시했다. 둘째,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영실·성판악·관음사·돈내코탐방로 등 탐방로별로 확인 가능한 경관자원을 분석하고 고찰했다.

자연경관자원은 동·식물, 지형·지질, 계곡, 산정화구호·습지, 오름, 동굴·케, 폭포·샘, 기상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자연환경을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형성배경, 외형 모습 등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자원끼리 묶어서 분석했다. 인문경관자원은 시설·도로형, 1차 산업형, 방어유적형, 기념물형, 종교·제사형, 풍수지리형, 신화·전설형, 예술·기록형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이에 속하는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자가 주요 탐방로별로 확인 가능한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적용한 결과 ‘관음사탐방로’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경관자원과 인문경관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경관자원일지라도 현장에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접목되지 않으면 파급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탐방객이 오가는 탐방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어리목탐방안내소, 산악박물관의 탐방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홍보전략 부재와 예산 미흡 등으로 경관자원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관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 가운데 ‘한라산 10대 경관’ 등 중요 경관자원을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설되어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별로 경관자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해설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한라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제어: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 한라산국립공원, 경관자원유형, 경관자원활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유라시아판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한반도 남서 해상에 있는 화산도로서 목포와는 142km, 서울과는 450km, 부산과는 268km, 일본의 쓰시마와는 240km 떨어져 있다. 제주도는 북동동-남서서 방향의 장축(74km)과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단축(32km)인 타원형 섬으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륙붕 위에서 이루어진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이다.¹⁾

제주도의 중심은 한라산(해발 1950m)으로 한반도의 산과는 형성기원이 달라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오대산, 북산한, 속리산, 월출산이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 산지에 위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산지에 분포하는 반면 한라산은 가장 젊은 지질시대인 신생대 제4기의 분화 활동으로 만들어졌다.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2002)³⁾, 세계자연유산(2007)⁴⁾, 세계지질공원(2010)⁵⁾으로 제주지역 자원이 등재되면서 한라산의 입지는 더욱 높아졌으며 3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중요지역이 한라산이다. 이처럼 한라산

1)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16), 『제주도지 1권』, 제주도, 43-44쪽.

2)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9쪽.

3)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육지 및 연안(해양생태계)지역을 말한다. 제주도는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6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200m 이상 지역만 해당되었던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꽃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ww.jeju.go.kr/wnhcenter/>). 2020년 4월17일 검색.

4)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와 자연이 특별히 뛰어난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곳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ww.jeju.go.kr/wnhcenter/>). 2020년 4월 17일 검색.

5)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 2004년 유네스코와 유럽 지질공원망(EGN)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됐으며, 전 세계 30개국 100개소(2014년 기준)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도는 2010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ww.jeju.go.kr/wnhcenter/>). 2020년 4월 17일 검색.

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경관자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라산이 특출한 경관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경관자원 특성을 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연구와 사업에 대한 전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식물자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반면, 인문경관자원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아울러 식물자원을 제외한 다른 자연자원과 관련해서는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류기준을 제시하거나 논의하는 사전 작업이 누락된 채 경관자원을 현상 위주로 나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 특성에 맞춰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연경관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규명된 인문경관자원의 특성을 밝히면서 그에 맞는 유형별 분류를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탐방객이 확인 가능한 자연경관자원과 인문경관자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탐방로별 경관자원 분석은 향후 한라산국립공원 경관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경관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주도민들은 매일 한라산을 보고 자라며 생활한다. 해안가 마을이나 산간 목장, 어디서든 한라산 정상에 보이는 듯 서로 닮은 듯 서로 다르다. 북쪽인 제주시에서는 격하게 요동치는 계곡과 날카로운 능선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남쪽인 서귀포시내에서 바라보면 중절모를 씌운 듯 봉긋 솟은 모양이다. 제주도민들은 어릴 때부터 본 한라산 정상 모습에 익숙한 때문인지 자신의 고향에서 본 정상 전경이 최고라고 여긴다. 한라산은 제주도민에게 제주,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상징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

제주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2018)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주를 상징한다(45.1%), 산 자체이다(18.5%), 가치이다(12.3%), 특별한 장소이다(9.8%) 등으로 응답했다. 제주를 상징한다는 유사 키워드로 고향, 근원, 마스코트, 제주인의 정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한라산=제주’ 라는 등식을 확인할 수 있다.⁶⁾

한라산 실체와 영역에 대해 정광중(2006)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설정하는 시점, 해발고도 500m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 한라산을 제주도와 동일시 설정하는 시점 등 3가지로 나누었다.⁷⁾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설정하는 시점은 한라산체의 크기와 한라산의 영역(공간적 범위)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압축해서 고려하는 시점인데 한라산의 영역을 가장 작고 좁게 설정하는 과정이지만 한라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해발 500m이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시점은 현원학(2004)이 제시한 것으로 과거 목마장용 잣성을 쌓았던 지점이라는 사실과 산림청이 관리하는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경계지점이라는 배경이 있다.⁸⁾

한라산을 제주도와 동일시하는 시점에 따른다면 사실상 제주도 전체 연구나 다름없어서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리고 해발 500m이상인 경우 토지이용과 소유주의 다양성, 출입제한, 경관자원 활용여부 불투명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연구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정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면 이에 따른 특성을 밝힐 수 있고, 효과적인 유형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행스럽게도 한라산은 1966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 182호)에 이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원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보호구역 지정 이후 인위적인 개입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유형 및 무형의 인문경관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관자원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지금까지 발행되거나 출판된 문헌을 조사했다. 한라산을 주제로 작성한 단행본과 논문을 검색해 내용을 검토했으며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거나 시행한 연구조사보고서 등 보고

6) 제주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2018), 『한라산가치보전천년대계수립보고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0-11쪽.

7) 정광중(2006),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1, 29-46쪽.

8) 현원학(2004),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3쪽.

서류를 확보해서 분석 작업을 했다. 필요한 최신 자료 등을 얻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연구자는 현지 조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한 달에 1회 정도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탐방했다. 어리목·영실·성판악·관음사·돈내코탐방로 등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한라산 백록담과 영실 기암괴석, 희귀 고산식물, 산정화구호를 비롯한 지형·지질과 동·식물 등에 대한 사진을 현지에서 직접 촬영했으며 경관자원의 가치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드론(무인항공기)으로 항공촬영을 했다.

이끼폭포, 탐라계곡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 경관자원 역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아 현지 확인 작업을 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제주 4·3사건, 산악인 기념물, 목축문화 등 인문경관자원 조사를 위해서 산악인,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증언을 채록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개념

경관(景觀)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매우 흔하고 단순한 용어이지만 대부분 경관의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경관의 의미를 풍경이나 경치 혹은 유적과 혼동하기도 한다. 풍경(scenery)이 일정한 시간대 혹은 일정 범위의 공간이 드러내는 막연한 분위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경치(scene)란 풍경 중의 순간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을 뜻한다. 유적(relics)은 물리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남겨놓은 역사의 단편적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관(landscape)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의 층위는 대단히 두껍다.⁹⁾

경관법(2018)에서는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또는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으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한다’고 정의¹⁰⁾하고 있다.

경관헌장(2017)에서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이다. 국토 경관은 모두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다’고 표현했다.

경관 즉 랜드스케이프(landscape) 단어는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초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대 덴마크 풍경화가들이 내륙의 전원풍경 의미로 쓰기 시작하다가 점차 일반적인 풍경을 의미하는 현대적 개념의 경관으로 변모했다. 경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다.¹¹⁾

9) 전종환(2006),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연구』 10, 65쪽.

10)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4월 15일 검색.

11)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쪽.

경관은 단편적 조각이 아니라 경관 요소들의 연합으로 이뤄진 일종의 체계(system)라는 사실, 그리고 경관 개념에는 관찰자가 서 있는 한 지점, 즉 시선 내지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 한 지점이란 바라보는 사람이 위치한 물리적 사회적 위치를 모두 포함한다. 경관에는 인간의 사상, 태도, 미학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12)

경관은 시각에 의해 눈에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주변 환경의 총체적인 배경이고, 시간적으로는 현재라는 시점에서 관찰자의 이동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일련의 4차원적인 종합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13)

이처럼 경관의 개념은 ‘보인다’는 대상의 형태, 특징, 성질 등과 함께 ‘바라본다’는 관찰자의 입장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관으로서 장소 또는 대상에 신화, 전설 등이 연계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경관보다 풍성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들 경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시각적 측면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핵심요소이다. 다만 시각과 더불어 촉각, 후각, 청각 등도 경관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작용을 하기에 경관의 개념을 ‘인간이 감각 및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인문적 환경’이라고 규정하기로 한다.

2. 경관자원의 개념과 유형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물질 자료 및 노동력, 기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4)

자원이란 자연상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자연물 가운데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자원은 천연자원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자원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창의력 등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포함한다. 자원의 특성은 편재성(자원이 일부 지역에

12) 전중환(2006), 앞의 논문, 66쪽.

13) 서종주(1999), 「도시공간특성에 따른 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30쪽.

14) 국립국어원(<https://st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4월 17일 검색.

편중되는 특성), 유한성(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 가변성(자원의 가치가 변화한다는 특성)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⁵⁾

개발중심의 시각을 보여주는 경관법에서는 경관자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우지 않았다. 경관법 제9조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자원 개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도 경관자원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조사대상, 범위, 방법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주신하·신윤지(2015)는 경관자원 개념에 대해 시각적으로 영향이 큰 대상으로 설명하려는 본질적인 정의에서부터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혹은 문화적 산물로 경관자원을 이해하려는 확장된 개념, 경관자원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경관자원을 파악하려는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됐다고 분석했다.¹⁶⁾

국립공원연구원 경관자원관리방안(2010)에서는 경관 및 경관자원 개념으로 국립공원 내 보호되는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생태계 구조와 특성, 인간 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풍경과 이를 탐방하는 관찰자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립공원 경관 100선 선정기준 검토위원회(2010)는 시각적, 심미적으로 아름답거나 정감적으로 느껴져 보전가치가 큰 지형, 식생, 동·식물, 자연현상 등 자연요소 또는 문화유산, 촌락, 생활상 등 역사·문화요소를 경관자원으로 봤다.¹⁷⁾

김다영(2019)은 경관자원이란 자연과 인간의 활동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요소로 정의했다. 요소의 범위는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자연 및 인공풍경과 같은 물리적 형태와 그 속에서 인간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특성이 있다. 이는 경관을 보고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마다 통일된 특성을 보인다.¹⁸⁾

경관자원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관적 가치는 보여지는 경관과 그 풍광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과 관

15)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8), 「국토경관자원 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68쪽.

16) 주신하·신윤지(2015),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43-3호, 27-42쪽.

17) 이숙향(2015), 「국립공원 경관자원보전관리전략」, 『제10회 국립공원 연구포럼 자료집』, 국립공원연구원, 5쪽.

18) 김다영(2019), 「기초 지방자치단체 경관자원 조사체계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4-5쪽.

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생태학적·형식 미학적·정신 물리학적·심미적 가치 등 정성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¹⁹⁾

경관자원이 법적 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관계획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관계획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경관자원의 유형 구분은 조사기관,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뉘고 있다. 경관계획수립지침에는 경관자원 분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됐는데 유형으로는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으로 나뉘었다.²⁰⁾

경관자원 유형은 정부 부처 등 조사기관,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표 1> 경관계획 수립지침 내 경관자원 유형구분

경관자원의 유형	대상
자연경관자원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산림경관자원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 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농산어촌경관자원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시가지경관자원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상업업무경관·공업경관자원 등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도로, 철도 등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 등의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출처: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45호(2015. 3. 11 개정).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경관자원 유형과는 별도로 농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으로 구분했다. 농업과 산림 경관 등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하는 생활 경관을 만들어 세부사항을 적시했다. 역사·문화경관 역시 농업과 산림에서 비롯된 경관을 주로 다루었다.

이들 경관은 대부분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원을 위주로 정리했으며 농법

19) 제주발전연구원(2016), 『제주도 오염종합계획』, 제주도, 7쪽.

20) 주신하·신윤지(2015), 「국내 경관자원 조사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43-3, 29쪽.

이나 놀이 등 농업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2> 농촌진흥청에서 구분한 경관자원의 유형

분류	유형	내용
농업경관	경작지 경관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에 관한 경관
	농업생산 시설경관	-용수로, 배수로, 농로, 비닐하우스, 저수지, 축사 등의 인공시설로 농업생산을 하는 시설
자연경관	산림경관	-휴식, 유희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경관 -숲, 녹지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관
	수경관	-물의 사용과 관련되어 형성된 경관
생활경관	공공건축 및 주거지경관	-주거 및 공공공간의 건축물과 주변의 포함되는 경관
	가로경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역할로 유지·형성되는 경관
	기타 시설물경관	-안내시설, 조형물 등 영농, 생활과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안내, 강조, 미관상의 목적으로 형성되는 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촌지역내 과거로부터 유지·보전되어 본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 일부 복원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있는 경관

출처: 김상범 외(2015), 찾아가고 싶은 농촌 아름다운 경관가꾸기: 농촌경관계획의 실제, 농촌진흥청.

국립공원 분야(2014년 국립공원자원조사)에서는 산악경관, 마을경관, 사찰·사적경관, 해양경관으로 구분했다. 이들 경관유형에는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자원 이외에도 상징적 이미지, 신화와 전설 등 무형의 경관자원도 포함됐다.

이 경관 분류에서 산악, 마을, 사찰·사적, 해양경관 등으로 구분했는데 전체 국립공원의 특성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악경관에서 인문경관자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인문경관자원으로 볼 수 있는 농업과 어업, 온천 등을 산악경관의 조사지역에만 있는 특이한 경관으로 구분했다.

<표 3> 국립공원 경관분류 현황(2014년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경관유형	항목	경관자원
자연·인문 자원	산악경관	지형	능선(스카이라인)봉우리, 기암(바위), 고개, 동굴 등
		식물	침엽수군락, 활엽수군락, 관목군락, 초본류 등
		수환경	계곡, 폭포, 소, 담, 습지 등
		특이경관	조사지역에만 있는 특이한 지형 및 경관(온천,약수, 농업, 어업 관련)
	마을경관	지형	경작지(논, 밭, 과수원), 계단식 논, 과수원 등
		역사 문화	문화재, 사적 등 지정 및 비지정 건조물, 신앙공간(돌무덤, 성황당 등), 마을 길(돌담, 흙담), 마을 상징물, 전통주택 등
		식물	마을 숲, 노거수
	사찰·사적 경관	역사 문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건조물 등
		식물	사찰 숲
	해양경관	지형	해변, 해변, 사구, 사빈, 섬, 갯벌, 염전 등
식물		방풍림 등	

출처: 이숙향(2015), 국립공원 경관자원 보전관리전략, 국립공원연구원 제10회 포럼 자료집.

제2절 선행연구 검토

한라산 식물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일본인 나카이(Nakai Takenoshin)가 프랑스인 선교사 포리와 타케 신부 등이 채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914년에 발표한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보고서>이다. 한국인으로는 한라산식물을 처음 채집한 정태현(1883~1971), 한라산 식물상을 처음 발표한 이덕봉(1898~?), 왕벚나무 조사연구사와 양치식물상을 정리한 박만규(1906~1977), 한라산 희귀식물 정립의 기초를 닦은 이창복(1919~2003) 등이 있다.²¹⁾

제1회 한라산학술등산대는 한국산악회가 국토구명사업으로 194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했다. 등산반 학술반 촬영반까지 합해 19명의 조사대로 편성됐으며 당시 촬영한 ‘제주풍토기’가 산악회와 자유신문사 공동 기획으로 상영되기도 했다.²²⁾

자유신문 1946년 3월 20일자 ‘민족문화의 귀중한 발견’이라는 제하 기사에

21) 김완병·김찬수(2013), 「한라산이 거느린 동·식물」, 『한라산이야기 한라산총서 축약집』, 제주도, 71-72쪽.

22) 강정효(2006), 「한라산 등반 및 개발사」, 『한라산총서 VI』,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51쪽.

서 한국산악회 송석하 단장을 인터뷰했지만 실제 한라산의 신비와 신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들 탐사대는 무속, 방언 등을 채록한 점으로 미뤄 한라산 보다는 제주지역 환경을 촬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동굴탐사 등에 공을 세운 부중휴(1926~1980)는 1963년 ‘한라산 등산안내-등산코스 개척을 중심으로’를 제주도지 제12호에 발표했다. 이 글은 한라산의 지리, 지형, 경관 및 보유 식물자원의 가치를 밝힌 등산 관련 최초의 종합안내서라 할 수 있다.²³⁾

제주도 지질학의 연구 역사는 1923년 요코하마의 서귀포층 연체동물 화석에 대한 영어논문과 1931년 하라구치의 화산활동과 화산암에 대한 연구가 시초다. 제주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해 지질조사를 수행했고 1970년대, 1980년대 단편적으로 소수의 학자들이 제주도 화산 지질에 관심을 보였으나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화산 이론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다.²⁴⁾

한라산국립공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자연자원조사는 제주도가 1992년에 1기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한 후, 2기 자연자원조사를 2001~2002년에 실시했고, 2012년에는 3기 자연자원조사를 추진 했다. 제주도는 1985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라산의 지질과 지형, 희귀식물, 관속 식물상, 구상나무, 양서파충류 등에 동식물 분야 조사보고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2006년에 나온 제주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역시 동식물 연구가 주를 이뤘다.

한라산관련 학술심포지엄 및 심포지엄은 2001년 한라산 백록담 담수화 및 분화구내 복원방안, 2002년 한라산 아고산대 보호·관리방안, 2004년 희귀 산림유전자원 시로미의 보존 및 자원화, 2004년 한라산과 부중휴, 2005년 한라산 야생생물의 현황과 보호관리 방안, 2006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학술적 가치조명과 과제, 2008년 한라산 고산습지의 학술적 가치조명과 과제 등이 열렸다.²⁵⁾

23) 제주도역사문화진흥원(2019), 『한라산 그리고 제주,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중휴 사진집』,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11~12쪽.

24) 강순석(2018), 「제주도 지질학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문」, 『제주학회 학술논문발표집』 1, 381쪽.

25) 고윤정(2016), 「한라산 조사연구 현황 및 인문분야 향후과제, 한라산 인문학의 가치를 논하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학술심포지엄』, 136쪽.

이와 별도로 2001년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부설 한라산연구소가 조사연구보고서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제주도에 계속 발간작업을 진행해 2020년 2월 제 19호 조사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이들 조사보고서를 보면 동식물 특성, 지질 지형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자연과 인문분야 종합보고서로 1994년 제주도 발행 <한국의 영산, 한라산>이 있다. 이 종합보고서 책자는 발간 취지를 ‘한라산의 생성과정과 자연·인문자원의 분포상황, 관광적·문화적 가치와 효율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라산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이 종합보고서는 한라산의 지질 지형, 동·식물상과 함께 관광·위락 자원의 유형, 문화재와 사찰, 전설, 민요, 한라산과 문학, 한라산과 4·3 등 인문분야 내용을 담았다.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한라산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종합적인 연구서는 2006년 발간된 <한라산총서>라고 할 수 있다. 한라일보사에서 실시한 ‘한라산 학술대탐사’에 나섰던 전문가들로 조직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를 책임기관으로 해서 10권을 한질로 하는 총서를 간행했다. 자연경관분야에 치중됐던 한라산 연구가 역사·유적, 인문지리, 구비전승·풍수 등 인문경관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기를 맞았다.

자연과학분야 연구에 치중됐던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조사는 1990년대 들어 인문분야로 관심이 넓어졌지만 현상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경관자원으로 고찰하고 유형 및 특성을 분석, 활용하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한라산’을 검색어로 설정해서 검색²⁶⁾한 결과 논문 제목에 한라산이 쓰인 학위논문은 모두 75편으로 이 가운데 인문분야는 적정수용력, 관광 자원화, 유산기, 생태관광, 경관분석 등을 주제로 한 7편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하다.

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index.do>), 2020년 4월 20일 검색.

제3장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 특성에 따른 유형

제1절 한라산에 대한 인식과 한라산국립공원 현황

1. 한라산에 대한 인식

한라산의 이름은 한라산(漢拏山), 두무악(頭無岳)·두모악(頭毛岳)·부악(釜岳), 원산(圓山), 영주산(瀛洲山) 등으로 불려왔으며 한라산은 은하수인 운한(雲漢)을 붙잡아 끌 수 있다는 의미, 두무악·두모악·부악은 산봉우리에 못이 있어서 마치 물을 저장하는 그릇인 두멍 또는 가마솥과 비슷하다는 의미, 영주산은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을 의미한다.

한라산이라는 명칭이 처음 기록된 것은 1397년(태조 11년) 권근(權近)이 지은 탐라라는 시제에서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이 만경창과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 라고 나오는데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고 보인다.²⁷⁾

한라산이 주민 생활 및 그 의식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상고시대부터 비롯됐다고 보이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임제(林悌)의 저서 ‘남명소승’ (南溟小乘)이 가장 이르다. 과거급제자 임제가 1578년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과 그 경관을 읊은 시 등이 실려 있다. 이어 ‘남사록’ (南槎錄)에는 1601년 제주안무어사 김상헌(金尙憲)의 등반기, ‘와유록’ (臥遊錄)에는 1609~1610년 제주판관 김치(金緻)의 등반기, ‘남환박물관’ (南宦博物)에는 1702~1703년 이형상(李衡祥) 등반기 등이 있다. 이들 등반기에는 한라산이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식생을 갖추었고, 이에 더하여 장엄하면서도 신령스러운仙境(仙境)의 체험을 담았다.²⁸⁾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에서는 한라산을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인지했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삼신산은 바다에 떠 있으며 선인이 살고, 불사약이 있으며, 인간세상과 멀리 있지 않지만 또한 쉽게 찾을 수 없는 신비의 공간으로 전국시대부터 삼신산을 줄곧 불로장생을 꿈꾸는 자들의 이상향으로 인식돼 왔다.

27) 제주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2018), 앞의 책, 39쪽.

28) 정광중(2006), 「한라산과 주민생활에 대한 사적 고찰」, 『한라산총서 III』,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3쪽.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전해졌으며 봉래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에 비의(比擬)하여 일컬어졌다.²⁹⁾

일제강점기간에는 일본인이 등산을 주도하다가 해방이후에는 한국산악회가 창립된 이후 각 지역별로 산악회가 구성되서 해외 원정을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진다.³⁰⁾ 해외원정을 나가는 전문 산악인들에게 한라산은 겨울 전지훈련 장소로 한 번쯤은 거쳐 가는 곳이었다. 전문산악인이 아니더라도 등산객이라면 남한 최고봉을 밟아보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

등산은 전문산악인 영역에서 체력단련, 호연지기를 기르는 야외활동으로 발전했고 등산동호인층이 넓어지면서 쉽게 접하는 여가생활로 변화했다. 1970년대 버스로 떠나는 주말 산행이 성행했고 1980년대 마이카 시대를 맞으면서 전국 유명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대 근교산행을 하는 일상적인 여가가 유행했고 2000년대에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걷기 열풍이 불었다.³¹⁾

2. 한라산국립공원 현황

등산이 하나의 문화로 폭넓게 퍼지면서 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 정책방안으로 등장한 국립공원 제도 도입은 당연한 이행과정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1872년 미국 옐로우스톤(Yellowstone)이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기능은 풍부한 종 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이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 등이다. 우리나라는 산악형(18개)와 해안·해양형(3개), 사적형(1개) 등 모두 22개 국립공원을 지정했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

29) 강정화(2014), 「유산기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남도문화연구』 26, 141-1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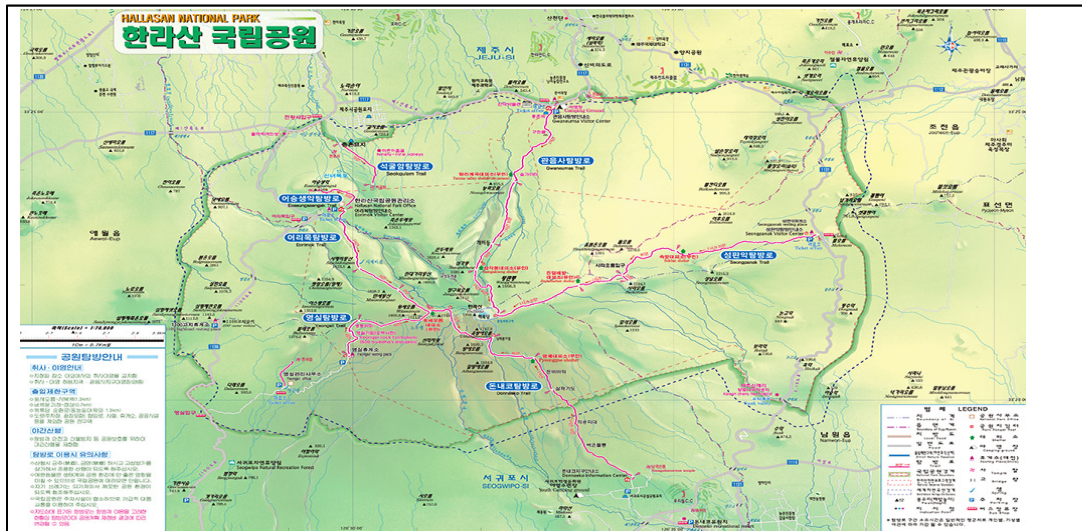
30) 대한산악연맹(2010), 『등산』, 전국등산학교 교재 제6판.

31) 오세숙·김종순(2013), 「한국 국립공원 형성과정과 환경주의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1, 75-88쪽.

리청이 22개 가운데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도서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1개 공원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³²⁾

한라산국립공원은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153.3km²의 구역이 지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 규모는 동서길이 14.4km², 남북길이 9.8km²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행정구역별 면적은 제주시 91.6km², 서귀포시 61.7km²이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59.8%인 91.7km²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6년 10월 12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은 1970년 3월 24일이다.³³⁾

용도지구별 면적으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89.1km², 공원자연환경지구 64.1km², 공원문화유산지구 0.1km²로 구분하고 소유별로는 국유지 149.3km², 공유지 1.3km², 사찰지 0.1km², 사유지 2.6km²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국유지 비율이 가장 높다.³⁴⁾



<그림 1>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출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2020. 4. 17).

한라산국립공원 내 건물은 공원시설 5개지구 77동, 공공시설(국토교통부 항공무선표지소, 제주장거리망중계소, 농촌진흥청 제주시시험장 등) 건물 9개소 30동,

32)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 2020년 4월 18일 검색.
33)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9쪽.
34) 제주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2018), 앞의 책, 60쪽.

사찰 건물 4개소 23동, 민간시설(휴게소, 표고재배장) 2개소 5동 등 모두 49개소 135동이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조성된 탐방로는 총길이 45km이며 돈내코 남벽통제소~백록담 정상 0.7km, 윗세오름~서북벽정상 1.3km, 백록담분화구 순환(동능제외) 1.3km 등은 통제되고 있다.

<표 4>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탐방로	구간	거리
영실	영실휴게소~윗세오름대피소~남벽분깃점	5.8km
어리목	어리목휴게소~윗세오름대피소~남벽분깃점	6.7km
관음사	관음사야영장~백록담 정상	8.7km
성관악	성관악탐방안내소~백록담 정상	9.6km
돈내코	돈내코탐방안내소~남벽분깃점	7.0km
어승생악	어리목휴게소~어승생악정상	1.3km
석굴암	충혼묘지주차장~석굴암	1.5km
사라오름	성관악탐방로~사라오름 전망대	0.6km
윗세족은오름	영실탐방로~윗세족은오름전망대	0.2km

출처: 한라산국립공원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 2020. 4. 17.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은 1994년 50만 명을 돌파한 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100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기상악화 등으로 입산통제 횟수가 많아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한라산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84만8279명 가운데 어리목 23만1158명, 영실 22만9668명, 성관악 31만1822명 등으로 3개 탐방로 이용객이 91.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높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어리목·영실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백록담 정상 탐방이 가능한 성관악탐방로에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주말마다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 관음사탐방로 역시 백록담 탐방이 가능하지만 성관악탐방로에 비해 오르막 난도가 높다는 평가 때문에 하산 코스로 이용하는 탐방객이 많다.

<표 5> 한라산국립공원 연도별 탐방객수

연도	탐방객 (명)					
	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1975	41,885	16,002	6,690	17,781	1,412	
1980	88,802	63,861	19,292	5,487	162	
1985	185,183	117,955	61,929	2,794	2,505	
1990	368,867	219,594	135,748	12,463	1,062	
1995	538,365	136,395	145,791	235,843	20,336	
2000	545,423	231,896	160,023	129,010	24,494	
2005	734,238	238,775	221,675	234,976	38,812	
2009	988,382	357,701	262,216	307,488	57,106	3,871
2010	1,141,632	367,411	276,091	363,494	68,024	66,612
2011	1,089,383	345,803	265,408	393,896	63,339	20,937
2012	1,134,316	364,501	269,878	418,791	63,169	17,977
2013	1,207,661	406,339	273,839	445,145	65,856	16,432
2014	1,166,202	393,959	272,719	418,273	67,685	13,566
2015	1,255,731	409,712	311,099	462,227	65,689	7,004
2016	1,065,898	381,035	284,188	350,548	43,160	6,967
2017	1,001,437	285,750	274,882	353,185	80,431	7,189
2018	891,817	236,480	256,627	318,310	75,207	5,193
2019	848,279	231,158	229,668	311,822	69,612	6,019

출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 (2020. 4. 17).

한라산국립공원 식생분포는 해발 600~1300m 서어나무 군락, 해발 600~1000m 졸참나무 군락, 해발 1300m이상에 서어나무와 혼생하는 구상나무 군락, 해발 1400~1900m 관목성인 털진달래-산철쭉 군락과 초원지대 등으로 구분된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생물종 가운데 식물은 950종이고 동물에서는 포유류 34종, 조류 121종, 양서류 8종, 파충류 6종, 곤충 2727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물상 가운데 멸종위기종은 I급 10종, II급 34종이다.³⁵⁾

35)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연구원(2018), 「제4기 자연자원조사체계화방안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16-19쪽.

제2절 경관자원 특성 및 유형

1. 경관자원 유형

정광중(2006)은 교육자원으로서 활용을 위해 한라산지 경관자원을 자연적 자원요소, 인문적 자원요소로 구분했다. 탐라계곡·영실계곡·아흔아홉골·돈내코 등 계곡이나, 선작지왓·만세동산 등 고산지역의 초원지대, 그리고 구상나무와 한란 등 일부 동·식물군은 고지대를 유지하는 곳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교육자원이고 인문자원으로는 백록담·마애명, 존자암지·하원동 절터, 존자암지·세존사·리탑, 어승생악·진지동굴 등을 제시했다.³⁶⁾

<표 6> 한라산과 주변 지역에서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사례

자연적 자원요소		인문적 자원요소	
자원명	교육내용 및 학습주체	자원명	교육내용 및 학습주체
한라산(체)	순상화산의 특징	백록담·마애명	선현(목민관)들의 등산 자취
탐라계곡/수악계곡/영실계곡/아흔아홉골/돈내코 등	계곡경관, 하천발원지	존자암지·세존사리탑	고려·조선시대 부도
어승생악/성관악/물장오리/불래오름/윗세(웃세)오름 등	측화산(오름)의 형성과정과 특징	관음사·천왕사·석굴암 등	근·현대 사찰경관특성
선작지왓/만세동산	고산 초원지대의 특성	상갓성/중갓성/하갓성/간장(間牆)	목마장 흔적, 갓성형태
영실기암/왕관릉/삼각봉	암석(바위)경관의 특성	법정사·항일항쟁지	사찰항일항쟁지
구린굴	고산지역의 용암동굴	녹하지악 4·3성터	4·3사건의 자취(흔적)
구상나무/왕벚나무	세계적인 희귀수종	물영아리 전설지 왕이메 전설지 조근대비악 전설지 등	오름 전설유적지
섬바위장대/섬매발톱나무/섬새우란/제주양지꽃 등	제주도 특산식물	입석마을 선돌(立石)	민간 신앙물의 특징
비자나무/시로미/한란/매화마름/돌매화나무 등	한국의 희귀식물	어승생악·진지·수악계곡·부근·동굴 등	한라산의 전적 유적지
노루/제주족제비/제주관박지/제주맛쥐 등	제주도의 특산 포유류	표고버섯 재배지	제주도의 대표적인 임산물 생산

출처: 정광중(2006), 한라산총서Ⅳ 한라산의 인문지리.

36) 정광중(2006),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활용」, 『한라산총서Ⅳ』,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59-263쪽.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한라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으로 구분한 <한라산의 자연자원>(2009)을 발간했다. 경관자원으로 오름 40개, 계곡과 기암절벽 17개, 동굴과 퀘 10개, 폭포 4개, 산정호수와 습지 7개, 용천수 22개 등과 동물과 식물의 생태자원을 수록했다. 경관자원을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한 시초로 보여진다.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장’ 처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인문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는 활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을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으로 구분하고 경관자원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했다. 자연경관자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분류를 해서 유형을 나눴고 인문경관자원에 대해서는 특징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시도했다.

자연경관자원을 동·식물, 지형·지질, 계곡, 산정화구호·습지, 오름, 동굴·퀘, 폭포·샘, 기상 등 8개 분야로 나눴다. 인문경관자원을 시설·도로형, 1차 산업형, 종교·제사형, 방어유적형, 기념물형, 풍수지리형, 신화·전설형, 예술·기록형 등 8개 분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2. 자연경관자원 특성과 유형

한라산국립공원 지형은 100여차례에 걸쳐 화산이 분출한 원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은 기후의 영향과 더불어 영실의 병풍바위, 오백나한, 탐라계곡 등의 절경을 만든 요인이 됐다. 용암분출에 따른 주상절리 발달과 풍화에 의한 지형적 특성으로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울창한 숲, 고산지대 희귀식물, 단성화산인 오름 등이 함께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³⁷⁾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은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8개소를 고정조사구로 선정해 지표별 지수값을 등급화한 결과 멸종위기종,

37)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도, 4쪽.

파충류 종다양도, 생태계교란종, 파편화, 수질(BOD)는 5등급, 양서류 종다양화는 4등급, 수질(DO) 3등급, 조류·저서성무척추동물 1등급으로 평가됐다. 등급이 높을수록 건강한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기초로 2019년도 한라산국립공원 공통지표 평점은 4.35점으로 2018년 4.20점에 비해 0.15점 상승해 매우 건강한 생태계로 나타났다.³⁸⁾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자연경관자원 가운데 희소성, 특이성, 조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8개 유형별로 대표적인 경관자원을 구분했다.

(1) 동·식물

한라산에는 75여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는데 특히 한라산 고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라산 고지대 한대성 식물은 빙하기 이후 고립되고 나서 한라산 환경에 적응한 산물이다. 좁은 면적임에도 많은 특산식물이 분포한다는 점은 한라산이 장기간 격리되어 종의 분화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한라산에서 이들 종이 사라질 경우 지구 전체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의미한다.³⁹⁾

세상에서 가장 키 작은 나무로 알려진 암매(또는 돌매화나무)를 비롯해 한라돌쩌귀, 들쭉나무, 덩굴용담, 한라구절초, 한라장구채, 한라습다리, 한라개승마, 흰닷딸기, 금방망이, 백작약, 섬매발톱나무 등이 있다.⁴⁰⁾ 불로초전설과 연관이 있는 시로미, 땅바닥에 포복해서 자라는 눈향나무, 국립공원 전역에 분포한 제주조릿대, 구상나무, 소나무, 호장근, 좁고채목, 한라부추, 초지 등은 군락 경관을 이루는 자원이다.

38) 김권수·정상배·고영민·강창완·고정균(2020),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건강성 평가」, 『제19호 조사연구 보고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113쪽.

39) 국립산림과학원(2017), 『한라산의 고산식물』, 국립산림과학원, 3쪽.

40)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www.jeju.go.kr/hallasan/), 2020년 4월 17일 검색.



<그림 2> 암매(돌매화나무)
출처: 연구자 촬영(2016.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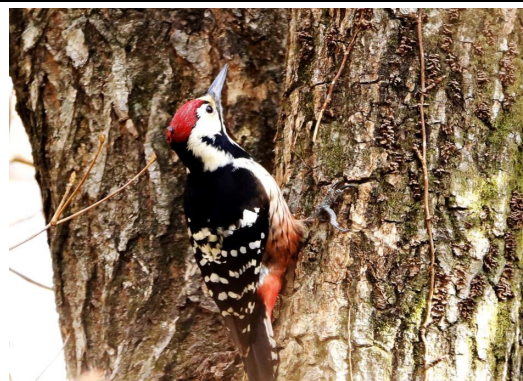
<그림 3> 한라구절초
출처: 연구자 촬영(2017. 10. 17).

동물에서는 노루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탐방로 등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거나 울음소리를 접할 수 있다. 한때 멸종위기였다가 1980년대부터 전개된 보호운동으로 개체수가 급증한 이후에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자 포획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등 적정 개체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⁴¹⁾

탐방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조류는 큰부리까마귀이다. 탐방객이 버린 음식을 처리하다보니 ‘한라산 청소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인공 음식을 먹다 보니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멸종위기인 붉은 박쥐, 검독수리, 매, 긴꼬리딱새, 팔색조, 비바리뱀, 삿, 비단벌레 등이 있다. 제주족제비, 오소리, 큰오색딱다구리, 제주휘파람새 등도 서식한다.⁴²⁾



<그림 4> 노루
출처: 연구자 촬영(2011. 1. 16).



<그림 5> 큰오색딱다구리
출처: 연구자 촬영(2017. 3. 12).

41) 『동아일보』, 제주 야생노루 포획 2년-적정 개체수는 얼마, 2015년 3월 20일자.

42)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www.jeu.go.kr/hallasan/), 2020년 4월 17일 검색.

(2) 지형·지질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지질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징은 울릉도, 독도 그리고 다른 해양 화산도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제주도는 한라산체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화산체와 수많은 오름으로 대변되는 단성(드물게 복성)화산체로부터 분출한 용암류 및 화산쇄설물이 합쳐지고 누적되어 형성된 섬으로 순상화산체로 해석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⁴³⁾

화산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백록담은 둘레 3km가량, 동서길이 600m, 남북길이 500m인 타원형이다. 동쪽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화산쇄설층을 덮고 있고 북-서-남쪽은 조면암 용암동으로 이뤄진 특이한 구성지질을 나타낸다.⁴⁴⁾



한라산 백록담 서측은 약 2만8000년전 초기 돔 붕괴로 인한 코멘다이트질 각력암, 조면암질 용암류, 그리고 조면암 돔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약 1만9000년 전에서 2만1000년 사이에 조면현무암질 용암이 새롭게 분출하여 현재와 같은 백록담 분화구가 형성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백록담 형성 후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이 분출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층서관계를 근거로 윗세오름과 방애

43) 고기원·박준범·강봉래(2013), 「제주도의 화산활동」, 『대한지질학회지』, 49(2), 209-230쪽.

44) 고기원·박준범·문덕철(2017), 『화산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 제주도개발공사, 33쪽.

오름이 형성된 이후 한라산 조면암 돛 및 백록담 분화구가 생성됐다는 해석이 새롭게 나왔다.⁴⁵⁾

지형·지질의 특징을 외관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자연경관자원은 영실 병풍바위와 오백장군, 선작지왓, 장구목오름, 아흔아홉골, 흑붉은오름, 돌오름, 만세동산, 삼각봉, 민대가리동산 등이 있다. 조면암류로 형성된 백록담 화구벽, 오름, 주상절리, 영실 병풍바위 등은 현무암류 경관자원에 비해 이른 시기에 무너져 내리는 특성이 있다.

(3) 계곡

하도에 물이 흐를 때 하도에서 물질을 제거하는 하천의 침식작용을 하식작용이라고 한다. 유수는 하상(하천바닥)과 하도 양안에서 수압을 가해서 물질을 흡수, 제거하기도 하며 유수가 운반하는 자갈이나 모래들이 하천바닥에 노출된 기반암위를 통과할 때 기반암에 충격을 가해서 이를 서서히 연마하기도 한다. 해발 600m 이상 한라산에서는 하천의 침식작용과 함께 중력에 의한 사면발달과정으로 형성된 V자 형태의 계곡이 나타난다.⁴⁶⁾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불규칙한 요철 지형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탐라계곡, 어리목계곡, 산별른내, 수악계곡이 대표적이다.



<그림 8> 수악계곡
출처: 연구자 촬영(2018. 11. 2).



<그림 9> 탐라계곡
출처: 연구자 촬영(2020. 3. 11)

45) 안웅산·홍세선(2017), 「제주도 한라산백록담 일대의 화산활동사」, 『암석학회지』, 26-3, 221-234쪽.

46) 안중기(2006), 「한라산하천의 자연적 특성」, 『한라산총서Ⅷ』,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32쪽.

(4) 산정화구호 · 습지

투수성이 큰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로 인해 메마른 산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국지적으로 습지가 발달한다. 화산폭발로 형성된 분화구에 물이 고이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경관자원이다. 한라산정상인 백록담분화구, 사라오름, 물장오리, 소백록담, 어승생악, 동수악 등이 있다. 또 다른 장소로는 오름에 둘러싸인 와지형태의 완사면이나 평탄면으로서 배수에 불리한 지형조건에서 습지가 출현한다. 이런 습지로는 만세동산습지, 불레오름습지가 있고 람사르습지로 등재된 1100고지 습지, 숨은물벙딕습지가 있다.



(5) 오름

제주는 ‘오름의 왕국’ 이라고 할 정도로 도처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오름은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의 화산활동 동안 만들어진 소형화산체로 백록담 정상부를 제외하고 높은 봉우리 또는 언덕지형으로 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분화구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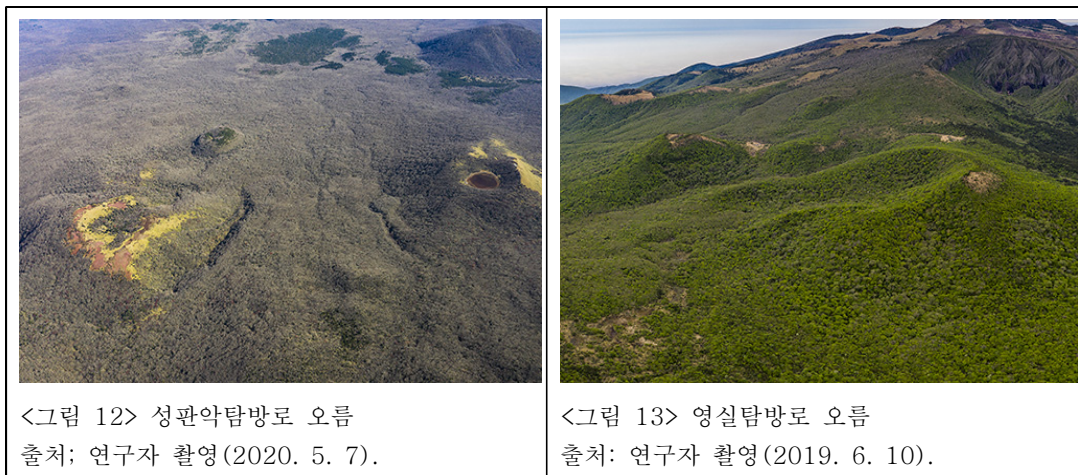
제주지역에서 오름은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용암이 솟구쳐 제주의 기반을 만든 건 한라산이지만, 그 위에 꽃자왈(용암이 흐른 암괴지대에 형성된 자연림)과 용암계곡을 만들면서 땅에 생명의 기운을 심고 키운 것은 오름이다.

47) 고기원·박준범·문덕철(2017), 앞의 책, 35-36쪽.

오름에서 제주사람들은 딸감, 산나물을 얻었고 소나 말을 키웠다. 제주의 최대 비극인 4·3 사건의 현장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오름은 거대한 땅굴진지였다. 빗물을 정화시켜 청정 지하수를 만드는 필터링 역할도 한다. 한라산 백록담을 제외하고 368개가 산재해 있다. 오름이 없었다면 제주지역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 타이틀을 얻기가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우마 방목지정도로 인식된 오름은 1990년대 부터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부상했다.⁴⁸⁾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의 터전이었던 오름경관의 미덕은 김종철을 비롯해 몇몇 선구자들이 1990년대 중반에 언급할 때부터 나타났다. 물결치는 듯한 오름의 선이 만들어내는 제주고유의 경관미는 역사와 문화의 주요 장면과 중첩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철학적 단상의 모티브이기도 했다.⁴⁹⁾

한라산국립공원지역에 분포한 오름은 칠팔오름, 이슬령오름, 성널오름, 삼형제오름, 어후오름, 불칸디오름, 쌀손장오리, 능화오름, 사제비동산 등 4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⁵⁰⁾



48) 『동아일보』, 기준 없는 자연휴식년제-제주오름이 망가진다, 2020년 4월 22일자.

49) 진중현(2019), 「제주관광의 경관이미지 변화와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 『제주학회 50차 전국학술대회』, 280쪽.

50)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16), 『오름종합계획』, 제주도, 22쪽.

(6) 동굴 · 켜

화산폭발로 용암이 흐르면서 동굴이 형성됐다. 용암동굴로는 용진굴, 구린굴, 평굴, 수행굴이 있다. 켜는 그리 길지 않은 ‘바위굴’ 을 이르는 제주방언으로 용암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가스가 팽창하다가 터지면서 남겨진 길이 6m, 높이 2m이하의 소형동굴로 용암동굴과는 규모나 형성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굴지형이다.⁵¹⁾

탐켄은 선작지왓에 위치한 암석군 가운데 하나로 켜의 깊이는 4.3m이고, 평케는 돈내코탐방로에 있다. 장구목오름의 윗상켄, 등터진켄도 있다. 이들 켄은 단순히 자연경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목동, 약초꾼, 제주4·3사건 당시 피난민 등이 거주하기도 했다.



<그림 14> 탐켄
출처: 연구자 촬영(2010. 5. 10).



<그림 15> 수행굴 추정 동굴
출처: 연구자 촬영(2010. 4. 30).

(7) 폭포 · 샘

화산지형인 한라산에서 하천은 대부분 건천으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폭포경관은 희귀하다. 많은 비가 올 때는 산벌른내, 탐라계곡, 수악계곡, 아흔아홉굴 등에 폭포가 형성된다. 평소에도 물이 흐르는 폭포로는 이끼폭포, 성널폭포, 선녀폭포가 있다.

샘으로는 사제비물, 영실계곡물, 백록샘, 노루샘, 성널샘, 용진각물이 있다. 이들 고지대의 샘물은 비가 올 때는 수량이 풍부한 반면 건기가 이어지면 사제비물 등의 용수량은 급격히 줄어든다. 백록샘은 다소 수량이 많은 편으로 해발

51)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제주도, 23쪽.

1700m가량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는 백록담 분화구 물이 암반틈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16> 백록샘
출처: 연구자 촬영(2018. 7. 29).



<그림 17> 이끼폭포
출처: 연구자 촬영(2019. 8. 4).

(8) 기상(일출, 안개, 바람 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매년 1월 1일 한라산 정상에서 일출감상을 위해 야간산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라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특별한 경관 자원이고 한라산에 수시로 발생하는 안개 역시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림 18> 안개에 싸인 백록담
출처: 연구자 촬영(2019. 4. 19).



<그림 19> 백록담이 보이는 일출
출처: 연구자 촬영(2018. 2. 20).

3. 인문경관자원 특성과 유형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역사·문화자원으로는 15곳(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로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등 명승이 4곳,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해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5곳이 조사됐다.

<표 7> 한라산국립공원 역사문화자원 현황

구분		수량	역사·문화자원내역
지정	소계	15	
	국가지정	명승	4 -사라오름(제83호)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제84호) -한라산 백록담(제90호) -한라산 선작지왓(제91호)
		천연기념물	5 -제주신례리 왕벚나무자생지(제156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제182호) -제주의 한란(제191호) -제주의 제주마(제347호) -제주 물장오리오름(제517호)
	제주도지정	유형문화재	3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제16호) -존자암지세존사리탑(제17호) -선덕사소장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호(제19-2호)
		기념물	2 -존자암지(제43호) -관음사왕벚나무자생지(제51호)
	등록문화재	1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제307호)
	비지정	소계	25
비지정	유형	11 -한라산내 사찰 및 암자 4건 -제주4·3사건 관련 2건 -한라산 마애명 2건 -산악인 케른 3건	
	무형	14 -한라산형성과정에 관한 전설 6건 -한라산과 신당에 관한 전설 8건	

출처: 제주도(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지정 문화재로는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유형문화재가 3곳, 존자암지 등 기념물이 2곳으로 나타났으며 근대문화유산으로 제주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가 등록문화재로 조사됐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사찰과 암자, 제주4·3사건 관련 유적, 한라산 마애명, 산악인 케른(cairn·등산용어로서 등산자가 이정표나 기념으로 쌓은 돌무더기나 석총 따위)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무형의 유산으로 한라산 관련 신화와 전설이 있다.⁵²⁾

인문경관자원은 대피소, 숯가마 등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형태를 띠는 자원도 있지만 전설, 신화처럼 무형의 인문경관자원이 있다. 한라산 고지대에서 소와 말을 키웠던 고지대 방목처럼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이 있다.

불교신앙, 풍수지리 등은 유형 또는 무형으로 지금도 제주도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문경관자원은 경관을 바라 보는 탐방객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 사전 정보인지 여부, 학습정도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른 특성이 있다. 이 같은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경관자원을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1) 시설·도로형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탐방로 시설을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데크, 돌계단 등의 형태가 있다. 탐방로 주변에는 대피소, 탐방안내소, 안내판, 편의시설 등이 있다.



<그림 20> 용진계곡 현수교
출처: 연구자 촬영(2011. 1. 8).



<그림 21> 삼각봉대피소
출처: 연구자 촬영(2019. 11. 16).

52)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앞의 책, 464쪽.

일제강점기간 한라산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인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하치마키도로 흔적이 한라산 둘레길에 남아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성된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1100도로, 5·16도로 개통으로 한라산 탐방이 보다 쉬워지면서 탐방객이 증가한 요인이다. 5·16도로의 숲 터널의 경관과 어리목탐방로, 1100도로의 1100고지의 겨울경관 등은 도로가 있기에 가능하다. 도로와 수원지 개발에는 제주도민과 이외 지역에서 인력이 투입되면서 다양한 사연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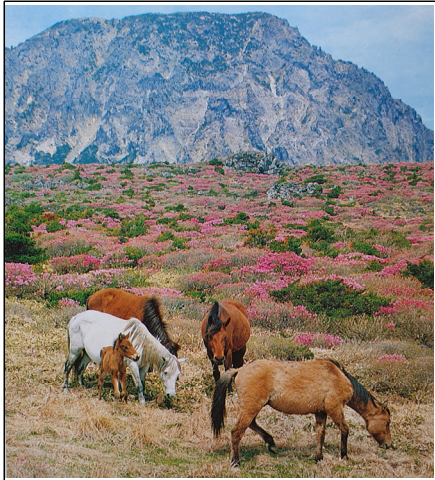
<그림 22> 1970년대 어리목탐방로 입구 수로(좌), 5·16도로 톨 케이트 모습(우)
출처: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은 20세기 제주시.

(2) 1차 산업형

일제강점기 한라산 일대에서 대규모 벌채가 이뤄지면서 포고버섯재배가 성행했으며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숲을 만들었던 숲가마, 수렵, 약초 수확 등의 활동이 있었다. 1973년 3월에 한라산 국유림 제30림반(조천읍 교래리)에서 수만그루를 벌채해 숲을 굶던 일당이 단속 공무원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라산의 숲가마터는 관음사코스, 어슬렁오름, 영실, 논고약, 성판악, 국유림8림, 속밭입구 등 7개소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⁵³⁾

고지대 방목은 백록담 부근 해발 1400~1950m에서 이루어진 아고산지대 목축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목축문화였다. 목축민들은 여름철 파종을 마무리한 후 일정한 날을 정해 백록담을 랜드마크로 삼아 우마를 올렸다.

53) 양송남(2010), 『양송남의 한라산이야기』, 태명인쇄사, 308쪽.



<그림 23> 선작지왓 방목
출처: 서귀포시(1994), 서귀포시의 어제와 오늘.

이곳에는 마을과 방목지를 연결하는 방목로가 존재했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가정책에 의해 국립공원 내 방목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라산 방목은 소멸되고 말았다.⁵⁴⁾

고지대 방목 외에도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제주시 오라동 능화오름(해발 965m)과 제주시 해안동의 죽은두레왓(해발 1339m)을 연결하는 해발 600~1200m 일대 위치한 화전동은 제주도의 화전 촌락 가운데 가장 높은 해발고도에 입지한 촌락이며

현재까지도 능화오름과 탐라계곡 북서쪽에는 화전촌락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⁵⁵⁾

(3) 종교 · 제사형

조선시대 임제(林悌)가 남긴 남명소승의 등한라산기(登漢拏山記)에 ‘산 중턱에 오르니 빙설이 아직 녹지 않았고, 곳곳에 깊이가 한 길 가량이나 되어 사람이 나 말이 폭폭 빠졌다. 말은 그대로 두고, 걸어서 겨우 존자암을 찾았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청순 스님이 나와서 맞아주었다’⁵⁶⁾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전부터 한라산에 불교문화가 있었다.

존자암의 창건시기는 알려져있지 않으며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해 실체를 확인했다. 현재는 발굴지 인근 영실탐방안내소 부근에 존자암 사찰이 새로 들어섰다. 제주시 방면사찰로는 관음사, 천왕사, 석굴암이 있으며 영실탐방로 입구에는 영원사가 있다.

54)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138-139쪽.

55) 강만익(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IV』,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139-140쪽.

56) 제주문화원(200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나라출판, 15쪽.



<그림 24> 존자암
출처: 연구자 촬영(2020. 4. 25).



<그림 25> 천왕사
출처: 연구자 촬영(2018. 8. 4).

‘한라산신제’는 1418년(태종 18) 한라산이 사전(祀典)에 등재되면서 한라산 신에 대한 제사가 봄과 가을에 이뤄졌다. 명산대천에 제를 지냄은 예로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중요한 나라의 일로 백록담에서 봉행됐다.⁵⁷⁾

백록담 북쪽에 제단을 마련해서 제사를 지냈고 기우제를 지낸 기록도 나온다. 물장오리오름에서도 기우제를 지내는 등 제사의식도 성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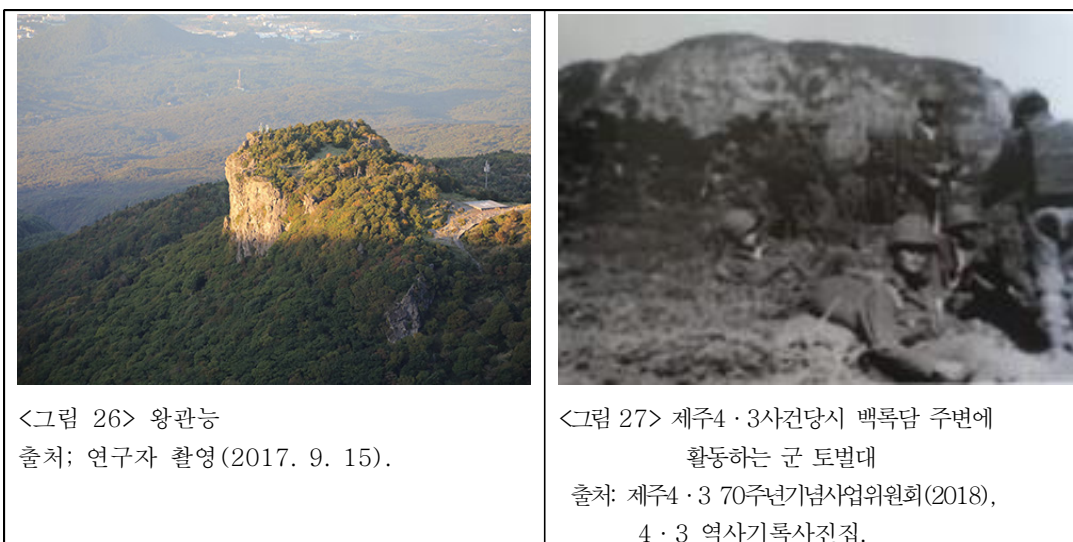
(4) 방어유적형

제주4·3사건 당시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 무장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 병력이 관음사에 주둔했다. 관음사전투로 불리는 교전이 무장대와 토벌대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고 지금도 토벌대가 주둔했던 유적이 남아있다.⁵⁸⁾

군경토벌대 주둔소는 모두 30여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음사를 비롯해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인 시오름, 수악 등지에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악주둔소(국가등록문화재 제716호)는 지금까지 석축, 초소 등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원형이 남아있다.

57) 고윤정(2013), 「조선시대 한라산유산기와 등람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25쪽.

58)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앞의 책, 480쪽.



일제강점기간 일본군이 구축한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07호로 등재됐다. 조선조 이형상 제주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의 그림을 보고 해발 1660m의 왕관릉 또는 삼각봉에 제주의 위급함을 알렸던 연대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⁵⁹⁾

(5) 기념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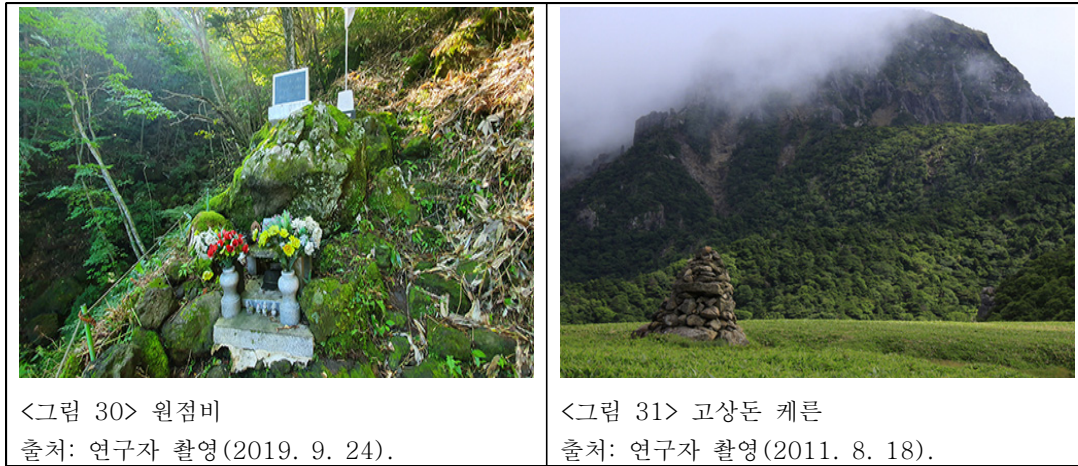
조선시대 한라산을 다녀간 인물 등이 암벽이나 벼랑에 글씨를 새겨 넣은 마애명(磨崖銘)이 백록담에서 31건이 조사됐다. 제주4·3사건으로 한라산에 대한 입산 금지령이 풀린 것을 기념하는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와 평정기념비가 백록담에 세워졌다. 1935년 겨울한라산 정상 등반에 도전했다가 조난 당한 일본 경성제국대학 산악부원 마에가와 도시하루를 기리는 케른과 묘비문이 한라산 용진각 남동쪽에 있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초의 한국인인 고상돈, 히말라야 8000m급 10좌를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한 제주출신 산악인 오희준을 기리는 케른이 있다.⁶⁰⁾

59) 강문규, 장윤식(2013), 「한라산에 남겨진 역사와 문화의 자취」, 『한라산총서 축약집 한라산이야기』, 제주도, 147쪽.

60)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2), 앞의 책, 481-4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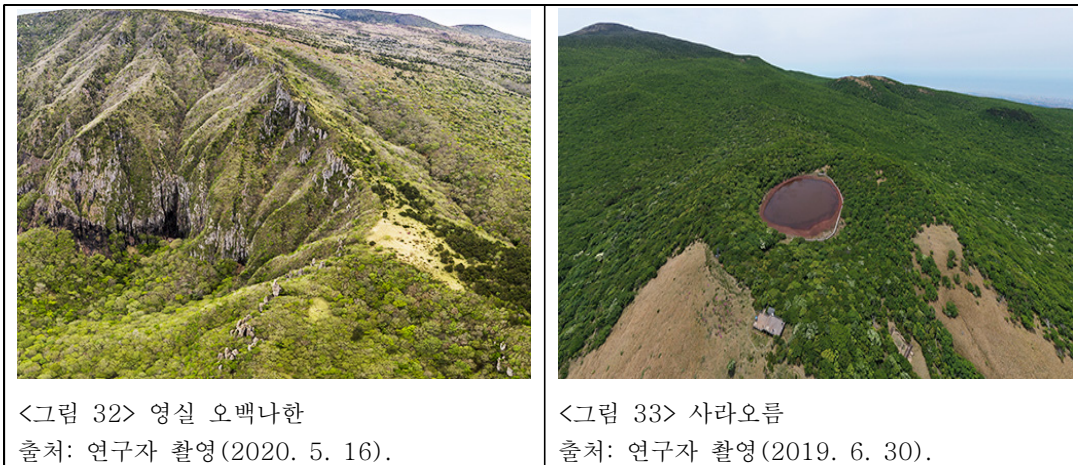
장구목오름에는 1984년 한라산에서 훈련 중 사망한 제주대학교 산악부 대장 고동익 기념비와 1992년 북미 매킨리봉 등정 중 사망한 양영수 외 2명의 기념비도 같이 있다. 1982년 대통령 경호 군용기가 관음사등산로 계곡에 추락, 특전사대원 등 53명이 숨진 사건을 기리는 기념비인 원점비 등은 관음사탐방로에 마련됐다.⁶¹⁾



61) 양송남(2010), 앞의 책, 196쪽.

(6) 풍수지리형

한라산은 제주풍수의 모체이며 지맥을 일으키는 발원지로 한라산은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까지 동서의 맥이 길게 떨어져 발복이 느리면서도 감응을 받으면 복이 오래간다고 했다. 한라산을 크게 사라오름을 중심으로 성판악을 따라 내려가는 맥과 영실쪽에서 내려가는 맥 등 크게 2가지 맥으로 구분했다.⁶²⁾



풍수지리에서는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삼아 길고 깊게 뻗어 내려온 대맥의 귀결지로 한라산을 인식했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형국론(形局論)을 중심으로 비롯된 전설적 명혈이 많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6대 음택혈인데, 제 1혈은 신이 내린 명혈지로 손꼽는 사라오름의 ‘사라혈’로 산의 형국이 마치 힘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형상으로 기운이 빼어난 곳이다.

제 2혈은 남근을 상징하기도 하며 개미의 머리형상을 하고 있는 속칭 ‘개미목’이라고 하는 의향혈이다. 제 3혈은 중국 주자의 부친이 묻혀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영실계곡의 ‘영실혈’로 봉황새가 울어대는 형국을 간직한 곳이다.⁶³⁾

(7) 신화·전설형

설문대할망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삼으로 흙을 7번 파서 던지니 한라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곳곳에 산재한 오름들도 설문대할망이 치마에 흙을 담아 옮

62) 신영대(2006),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한라산총서Ⅴ』,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6쪽.

63) 신영대(2006), 위의 책, 165쪽.

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⁶⁴⁾ 제주를 창조한 거대여신인 설문대할망 신화는 곳곳에서 전해진다. 한라산국립공원 물장오리오름은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은 곳이라는 이야기, 영실계곡의 오백나한도 설문대할망과 연결이 된다.

한라산신 사상은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을 통해 내려왔다. 본래 한라산신은 온 도민의 신앙 대상이었다. 바꿔 말하면 온 도민은 한라산을 신성시하고 거기에 신의 존재를 믿어 그들의 복리를 기원했었다. 이 신앙행사는 마을의 복리를 축원하며 전승되었기 때문에 어느새 한라산신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마을의 수호신이란 바로 당신(堂神)이다. 한라산에서 출생했다고 전해지는 당신들은 바로 한라산신 숭배의 잔영이다. 한라산에서 출생했다는 당신은 그 수가 30에 이른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난 구좌읍 세화리 당신 천자또, 서귀포시 보목동 보름웃도, 남원읍 하로영산 백관또, 한라산 상봉 셋어깨에서 솟아난 성산읍 수산리 올래모루 하로산, 중문동 하로산 등이다. 한라산 출생신들은 그 이름에 하로산이 잘 붙는데 하로산은 한라산을 뜻한다.⁶⁵⁾

(8) 예술 · 기록형

고지도에 나타난 한라산 백록담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진 사례가 많아 당시 백록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당시 의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제주도도(濟州島圖·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탐라도총에 백록담분화구에 신선과 사슴의 모습을 그려 넣고 ‘사슴 한 마리가 우뚝 뛰어나고 색깔이 하얀데 등 위에 백발의 한 노인이 타고 있었다. (중략) 못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대략 이러하다고 한다’ 는 기록이 나온다.⁶⁶⁾

조선시대 제주에 거주했던 관료 등은 한라산을 탐방하고 난 후의 느낌이나 과정을 유산기로 남겼으며 당시 기록물은 한라산 식생과 제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임제(林悌)의 저서 ‘남명소승’, 김상헌의 ‘남사록’, 이형상의 ‘남환박물’ 등이 이에 속한다.

64) 강정효(2003), 『한라산』, 돌베개, 157쪽.

65) 현용준(1970), 「한라산에 얽힌 전설과 신앙」, 『제주도지』 44, 103-104쪽.

66) 국립제주박물관(2013), 『한라산』, 국립제주박물관, 99쪽.



<그림 34> 백록담을 표시한 고지도
출처: 국립제주박물관(2013), 한라산.

경관적 가치를 알리려고 한라산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림으로 한라산을 표현하는 예술작품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 교가에 ‘한라산’ 단어가 들어간 사례가 많은 점은 한라산이 제주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시,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도 한라산은 주요 소재이자 주제이다. 예술작품과 다양한 기록물도 인문경관자원의 한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제3절 주요 탐방로별 경관자원 특성 및 유형

1. 탐방로별 경관자원 분석 의의

자연경관자원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경관을 바라보는 주체의 조망권역에 있어야 한다. 경관주체의 조망유형은 특정지점(장소)에서 경관자원을 조망하는 지점조망형, 특정 가시구간에서 경관자원을 연속적으로 조망하는 연속조망형, 연속조망구간이 순환적으로 연결 또는 중첩되는 순환조망형 등이 있다. 전체 경관형, 부분 경관형, 개별 경관형에 따라 조망범위를 나누고 근경, 중경, 원경 등 조망거리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⁶⁷⁾

경관주체가 훌륭하고, 장엄하고,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경관을 직접 확인할 수

67) 문화재청(2016), 「명승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9차)」, 문화재청, 27-30쪽.

있어야 감동과 효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영상 등 간접 체험 시스템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경관주체의 직접 체험에 비할 수 없다. 경관주체가 한라산 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탐방로별로 경관자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탐방로별 경관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을 유형별로 표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확인 가능한 자연경관자원 유형은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2009)이 <한라산의 자연자원>에서 밝힌 오름 40개, 계곡과 기암절벽 17개, 동굴과 례 10개, 폭포 4개, 산정호수와 습지 7개, 용천수 22개, 동물 14개, 식물 13개의 구분을 기본으로 했으며 인문경관자원 유형은 이전 선행연구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2. 탐방로별 경관자원

(1) 어리목탐방로

어리목탐방로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해발970m)에서 시작하여 어리목계곡, 사제비동산(해발1423m), 만세동산(해발1606m), 윗세오름 대피소(해발1700m),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분기점(해발1600m)까지 이어지는 총 6.8km의 탐방로이다.

돈내코와 영실탐방로로 하산할 수 있다. 경사가 가파른 사제비동산 구간은 다소 체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만세동산에서 윗세오름 대피소를 지나 남벽분기점까지는 완만한 평탄지형으로서 백록담 남쪽 화구벽과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어리목탐방로는 사제비샘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지만 건기 시에 샘이 마르는 경우도 있다. 이곳 탐방로에서는 노루의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다. 남벽순환로는 고도차가 거의 없는 고산평원으로 깎아지른 수직 절벽인 한라산 정상 남벽과 세 개의 방애오름이 연이어 펼쳐진다.⁶⁸⁾

68)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 2020년 4월 18일 검색.



<표 8> 어리목탐방로 경관자원

자연경관		인문경관	
동물 식물	-노루, 제주족제비, 큰오색딱다구리, 제주휘파람새, 줄장지뱀, 북방산개구리 -시로미군락, 구상나무군락, 낙엽활엽수림, 소나무군락, 관목림, 고산식물, 계곡식물, 습지식물, 특산식물, 고산식물	시설·도로형	탐방로, 어리목탐방안내소, 어리목광장, 탐라목교, 윗세오름대피소, 윗세오름대피소광장, 기상관측장비, 모노레일, 위치안내판, 윗세오름 전망대, 1100도로, 어리목진입로
지형 지질	백록담 분화구 서벽·남벽, 토르지형, 암괴지대	1차 산업형	방목, 수렵, 약초
계곡	어리목계곡	종교·제사형	마용기 암자
산정화 구호·습지	만세동산 습지	방어 유적형	어승생악 일본군 진지동굴
오름	민대가리·족은드레·큰드레·켓망·이스령·사제비·만세·윗세·어승생·붉은·방에오름 등	기념물	산악인(오희준) 케튼과 표지석
동굴·케	등터진케	풍수 지리형	6대 음택명당의 제4혈(해두명)
폭포·샘	사제비샘, 윗세물, 오름약수, 이끼폭포, 방아오름샘, 백록샘	신화·전설형	설문대할망과 한라산, 아흔아홉골
기상	안개, 바람, 설경 등	예술·기록형	지도, 그림, 음악, 문학 등

(2) 영실탐방로

영실탐방로는 영실관리사무소(해발1000m)에서 영실휴게소(해발1280m)까지 2.4km의 자동차도로 및 탐방로 병행구간과 영실휴게소에서 윗세오름대피소(해발1700m)을 경유 남벽분기점(해발 1600m)까지 5.8km의 탐방로이다. 돈내코와 어리목탐방로로 하산할 수 있다. 경사가 비교적 급한 영실분화구 능선(해발 1300m~1550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탄지형이다.

영실탐방로는 영주십경 중 하나로 영실기암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소나무 숲, 아고산식물의 천국인 선작지왓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라산 노루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라산에서만 자생하는 흰그늘용담과 섬바위장대, 섬매발톱나무 등이 관찰되고 선작지왓 현무암질조면안산암 용암류가 만들어낸 돌탑이 성벽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어서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영실계곡과 윗세오름에서 용출되는 노루샘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으나 건기 시에 마르기도 한다.⁶⁹⁾



69)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 2020년 4월 18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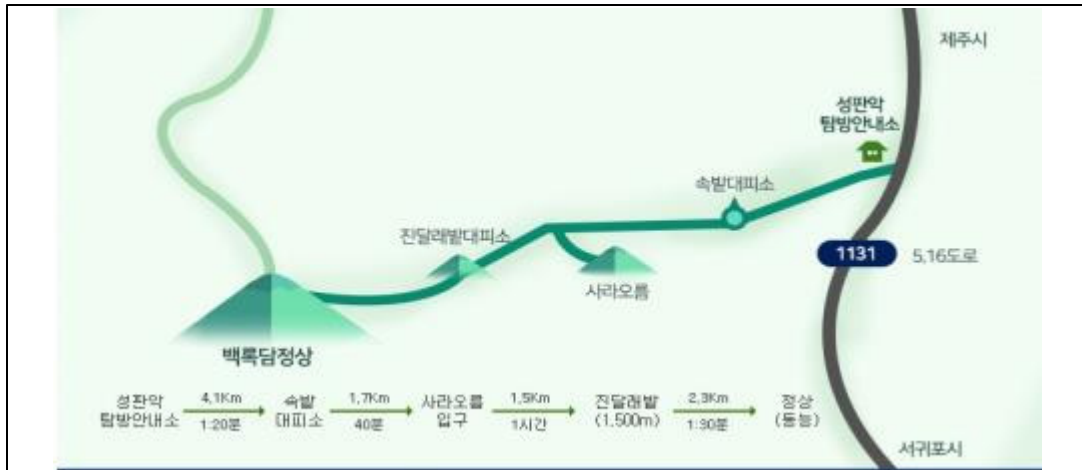
<표 9> 영실탐방로 경관자원

자연경관		인문경관	
동물 식물	-노루, 제주족제비, 큰오색딱다구리, 제주휘파람새, 줄장지뱀, 북방한개구리 -구상나무림, 관목림, 낙엽활엽수림, 소나무림, 희귀식물, 특산식물, 고산식물	시설·도로형	탐방로, 영실탐방안내소, 윗세오름대피소, 윗세오름 광장, 윗세오름 전망대, 1100도로
지형 지질	백록담 분화구 서벽·남벽, 토르지형, 영실기암, 오백나한, 병풍바위, 선작지왓	1차 산업형	방목, 수렵, 약초, 표고버섯, 숯가마
계곡	영실계곡	종교·제사형	존자암, 영원사, 수행굴
산정화 구호·습지	노루샘 습지	방어 유적형	
오름	불레·챗망·이스링·윗세·왕·장·삼형제오름 등	기념물	산악인(오희준) 케른
동굴·캐	영실캐, 탑캐	풍수 지리형	6대 음택명당의 제3혈(영실혈)
폭포·샘	영실샘, 노루샘, 방아오름샘, 백록샘	신화·전설형	설문대할망과 한라산,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기상	안개, 바람, 설경 등	예술·기록형	지도, 그림, 사진, 음악, 문학 등

(3) 성관악탐방로

한라산 동쪽코스인 성관악탐방로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오를 수 있는 탐방로이다. 한라산 탐방로 중에는 가장 긴 9.6km이다. 성관악관리사무실(해발 750m)에서 출발하여 속밭, 사라오름입구, 진달래밭대피소를 지나 정상까지 이른다. 하산은 관음사 코스로도 가능하다. 탐방로 5.8km지점에 사라오름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600m를 오르면 산정호수와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사라오름 전망대가 있다.

이 탐방로의 특징은 백록담 정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탐방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탐방로에서 보이는 오름군락은 화산섬의 신비감을 그대로 전달해준다. 한라산 자생지인 구상나무 숲이 가장 넓게 형성된 곳이다.⁷⁰⁾



<그림 37> 성관악탐방로

출처: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 2020. 4. 18.

<표 10> 성관악탐방로 경관자원

자연경관		인문경관	
동물 식물	노루, 제주족제비, 큰오색딱다구리, 줄장지뱀 구상나무림, 관목림, 시로미군락, 눈향나무군락, 희귀식물, 암극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고산식물	시설·도로형	탐방로, 성관악탐방안내소, 선달래대피소, 선달래밭 대피소, 정상대피소, 모노레일 위치안내관, 5·16도로
지형 지질	백록담 분화구, 토르지형, 암피지대	1차 산업형	방목, 약초, 수렵, 숯가마터
계곡	흙붉은오름계곡	종교·제사형	백록담 한라산신제, 가우제
산정화구 호·습지	사라오름·물장오리·동수악 산정화구호	방어 유적형	
오름	흙붉은·사라·돌·물장오리·어후·불칸디·썰손장오리·테역장오리·물·넙거리·개오리·논고악·성진이·동수악·이승악·성널오름 등	기념물	미애명, 개방기념비
동굴·케		풍수 지리형	6대 음택혈의 제1혈(사라혈)
폭포·샘	성널샘	신화·전설형	설문대할밍과 한라산, 백록담 흰사슴과 신선
기상	일출, 안개, 바람, 설경 등	예술·기록형	지도, 그림, 음악, 사진, 문학 등

70)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 2020년 4월 18일 검색.

(4) 관음사탐방로

한라산 북쪽 코스인 관음사탐방로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오를 수 있는 8.7 km의 탐방로이다. 계곡이 깊고 산세가 웅장하며, 해발고도 차이도 커 한라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탐방로에서 입구가 보이는 구린굴은 제주도내 동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굴동물과 박쥐의 집단서식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탐라계곡을 지나 능선을 오르면 울창한 숲이 있는 개미등이다. 삼각봉대피소를 지난 용진각계곡에는 물이 솟는다. 왕관릉은 화산폭발로 빚어진 기기묘묘한 바위와 웅장한 품새, 고사목 등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⁷¹⁾

이 탐방로는 산행 초보자들이 힘들어하는 코스로 2개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 용진계곡에서는 샘물이 나와서 탐방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만 겨울이나 갈수기에는 마르는 일도 있다. 조면암질로 이뤄진 백록담 북벽은 풍화작용 등으로 벽이 점차 무너져내리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타원형인 백록담 분화구는 북벽이 터진 말발굽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림 38> 관음사탐방로

출처: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u.go.kr/hallasan/>), 2020. 4. 18.

71)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u.go.kr/hallasan/>), 2020년 4월 18일 검색.

<표 11> 관음사탐방로 경관자원

자연경관		인문경관	
동물 식물	-노루, 제주족제비, 큰오색딱다구리, 줄장지뱀, 북방산개구리, 제주회파람새 -구상나무림, 관목림, 좁고채목군락, 낙엽활엽수림, 소나무림, 시로미군락, 눈향나무군락, 암극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고산식물	시설·도로형	탐방로, 관음사탐방안내소, 관음사지구야영장, 산악박물관, 삼각봉대피소, 용진각대피소 터, 정상대피소, 모노레일, 탐라계곡육교, 구름다리, 헬기비상착륙장, 전망대
지형 지질	백록담 분화구, 토르지형, 삼각봉, 왕관바위	1차 산업형	방목, 화전농업, 약초, 수렵, 잣성, 솟가마터
계곡	탐라계곡, 용진각계곡, 장구목계곡	종교·제사형	관음사, 백록담 한라산신제, 기우제
산정화 구호·습지	물장오리 산정화구호, 소백록담	방어 유적형	제주4·3사건 유적, 연대(왕관릉, 삼각봉)
오름	장구목·삼각봉·왕관릉·흙붉은·성널·어후·불칸디·능화·물장오리·쌀손장오리·테역장오리 등	기념물	마애명, 한라산개방기념비, 산악인 케른(고상돈, 대학산악회원) 묘비, 특전사 위령비
동굴· 계	용진굴, 구린굴, 평굴	풍수 지리형	6대 음택명당의 제2형(의향형)
폭포· 샘	탐라계곡 삼단폭포, 탐라계곡 이기폭포	신화·전설형	설문대할망과 한라산, 백록담 흰사슴과 신선
기상	일출, 안개, 바람, 설경 등	예술·기록형	지도, 그림, 사진, 음악, 문학 등

(5) 돈내코탐방로

돈내코탐방로는 서귀포시 돈내코유원지 상류에 위치한 탐방안내소(해발 500m)에서 시작하여 썩은물통, 살채기도, 평계대피소(해발 1450m)를 지나 남벽분기점(해발 1600m)까지 이어지는 총 7km의 탐방로이다. 윗세오름과 연결된 남벽순환로를 따라가면 어리목과 영실탐방로로 하산 할 수도 있다. 돈내코탐방로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상록활엽수림과 단풍나무 서어나무 등 낙엽활엽수림, 구상나무, 시로미 등 한대수림이 수직적으로 분포하고 있다.⁷²⁾

72)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 2020년 4월 18일 검색.



<그림 39> 돈내코탐방로

출처: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go.kr/hallasan/>), 2020. 4. 18.

<표 12> 돈내코탐방로 경관자원

자연경관		인문경관	
동물 식물	-노루, 제주족제비, 큰오색딱다구리, 제주휘파람새, 북방산개구리 -구상나무림, 관목림, 낙엽활엽수림, 소나무림	시설· 도로형	탐방로, 돈내코탐방안내소, 평계대피소, 전망대, 남벽분기점 대피소
지형 지질	백록담 분화구 남벽, 암괴지대	1차 산업형	방목, 표고버섯, 약초, 수렵
계곡	산별른내	종교· 제사형	
산정화 구호· 습지		방어 유적형	
오름	방애오름	기념물	
동굴· 케	평계	풍수 지리형	
폭포· 샘		신화· 전설형	설문대할망과 한라산
기상	안개, 바람, 설경 등	예술· 기록형	지도, 그림, 사진 등

3. 탐방로별 경관자원 분석 결과

주요 탐방로 경관자원을 확인한 결과 관음사탐방로가 자연경관, 인문경관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탐라계곡을 낀 탐방로이기 때문에 동식물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백록담 서북벽, 계곡 등의 특수하고 독특한 지형·지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계곡에서 용암동굴인 구린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백록담 정상에 이르기까지 고산식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 4·3사건 유적, 숯가마터, 화전농업 흔적 등 인문경관자원도 풍부하다.

관음사탐방로는 제주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에서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문경관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록담 서북벽 전망대와 동능 정상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오름의 수는 탐방로 가운데 가장 많다.

성관악탐방로는 제주4·3사건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가 교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탐방로에 있는 사라오름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꼽히며 산정화구호의 전형을 보여준다. 성널오름(또는 성관악)의 폭포는 제주도민들이 여름철 물맞이 장소로 자주 찾는 곳이었으며 속밭 일대는 삼나무가 인공 조림된 이후 새로운 산림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백록담 정상에 이르는 동릉에서는 구상나무 숲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라오름, 성널오름, 흙붉은오름, 돌오름 등의 경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어리목탐방로는 사제비샘 등 풍부한 샘물과 함께 산악인 케른이 위치해 있다. 계곡에는 산간지역 주민들의 용수로 공급되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다. 탐방로에 있는 만세동산에서는 소와 말을 풀어놓고 길렀던 고산 방목의 목축문화가 담겨 있으며 억새와 소나무가 기후온난화에 따라 고지대로 서식처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칠팔오름, 사제비오름, 민대가리오름, 죽은드레, 큰드레, 윗세오름 등의 오름경관이 있다. 어승생악에는 일제강점기간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해서 파놓은 진지동굴이 남아있다.

영실탐방로는 선작지왓으로 불리는 고산평원과 더불어 털진달래, 산철쭉이 장관을 이룬다. 병풍바위와 오백나한으로 불리는 기암괴석, 비가 내릴 때만 형성되는 비 폭포 역시 비경으로 유명하고 이 폭포는 겨울철이면 얼음 폭포로 변하기도 한다. 영실은 불교의 발상지로 불려질 만큼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존자암, 수행굴은 조선시대 유산기에 등장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돈내코탐방로는 인문경관자원에서 다소 빈약하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정한 국립공원지역에 한정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난 한라산 남쪽 일대에는 표고재배, 솟가마, 수렵, 4·3사건 토벌대 주둔소, 일제강점기 하치마키도로 등 다양한 인문경관자원이 산재해 있다.

제4장 한라산국립공원지역 경관자원의 활용방안

제1절 경관자원 활용 현황과 문제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어리목탐방안내소, 산악박물관, 해설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관자원을 알리고 있다.

어리목탐방로 입구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탐방정보 제공은 물론 한라산의 탄생과 역사, 전설, 지형지질, 자연생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 전시공간이다. 한라산의 탄생과 이야기, 생명의 숲 한라산, 한라산 탐방백서를 타이틀로 한 제 1~3전시실과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인 창작교실,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실과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을 이용할 수 있다. 조성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85㎡규모이다.

2015년 3월 24일 개관한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은 제주산악역사, 등반 변천사 조사 전시, 세계최고봉 등정 제주산악인의 강인한 산악정신을 소개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산행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설립배경은 한라산 자연환경의 이해와 제주 산악인의 역사, 제주산악사 조명 및 산악문화 전달 및 등산장비, 산악기록물 전시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산악문화의 전달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한라산의 소중함과 환경보존의식 고취 등이다.

산악박물관은 제주시 관음사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소장품은 등산관련 유물 총 686점, 고상돈 산악인 유물 47점, 오희준 산악인 유물 46점, 제주산악안전대 46점, 기타 403점, 에베레스트 등반 관련 기증 유물 144점 등이다.⁷³⁾ 산악박물관 입구에는 인공 암장이 조성돼 암벽 등반을 위한 훈련코스 또는 체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7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자료(2020. 4. 17).

<표 12> 산악박물관운영 실적

연 도	횟수	참여 인원(명)	프로그램 세부내용		
2015년	6	126	산악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등		
2016년	66	1,348	청소년동계 산행프로그램, 도전 스파이더맨 등		
2017년	88	1,793	산악박물관 신나는 체험, 도전 스파이더맨 등		
2018년	101	2,180	클라이밍	64회	1,171명
			단 체	18회	786명
			가족캠핑	2회	45명
			박물관시네마	5회	77명
			숲속탐방	12회	101명
2019년	169	3,704	클라이밍 가족등반교실	57회	919명
			단체 프로그램	18회	1,094명
			특별 프로그램	2회	696명
			어린이 원정대	30회	302명
			호기심 쿵쿵, 릭드로세트만들기	46회	577명
			관음사 숲속탐방	16회	116명

출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자료(2020. 4. 1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화산지형의 특징과 숲 이야기’, ‘탐라계곡에서 들려주는 한라산이야기’ 등의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산행전 단체해설’, ‘고지대 거점 해설’ 등을 운영했다.

2020년 4월부터 계획한 해설프로그램은 ‘한라산 구상나무가 들려주는 기후변화이야기’ (환경부 인증프로그램)가 있다. 운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소요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이상 단체)이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해설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으며 교육프로그램인 ‘역사의 자취가 서린 한라산 오름탐방’, ‘숲이 들려주는 화산섬 이야기’, ‘고지대해설프로그램(윗세오름 일대)’ 등은 축소 운영됐다.

<표 13> 해설프로그램운영 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회	인원
합계	1,976	42,297	1,824	26,762	1,701	30,463	2,346	30,290	1,218	39,659
창작교실, 전시실 해설	10	69	56	3,202	41	1,323	94	831	158	1,211
역사의 자취가 서린 한라산 오름 탐방	692	17,328	644	11,336	1,537	24,865	585	5,295	281	3,659
신선이 머무는 계곡, 영실에서 듣는 제주이야기	467	7,906	451	4,762	-	-	-	-	-	-
화산지형의 특징과 숲 이야기	502	14,012	487	5,687	-	-	-	-	235	1,570
탐라계곡에서 들려주는 한라산 이야기	305	2,982	186	1,775	-	-	-	-	-	-
찾아가는 국립공원					16	728	-	-	-	-
현장체험학습					15	1,754	15	1,399	66	1,534
환경인증프로그램									39	712
산악박물관 프로그램					92	1,793	101	2,180	169	3,704
산행전 단체해설							247	9,923	101	3,171
고지대거점 해설							941	7,833	136	1,857
줄참나무 이야기							349	2,203	-	-
장애인 등 특별프로그램							14	626	33	545
어리목 탐방지원센터										21,696

출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 자료(2020. 4. 1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설프로그램은 단발성에 그치고 대상이 초등생에 한정된 아쉬움이 있다. 해설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탐방안내소와 산악박물관 방문을 제외하면 2019년도 실제 해설프로그램 참여인원은 7000여명 수준이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2시간에 불과한 점도 경관자원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악박물관인 경우 체험프로그램이 박물관에 설치된 인공암장에서 이뤄지는 클라이밍

이나 산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경관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빈약하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이다. 해설 내용 또한 자연자원에 치우쳐 있거나,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해설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도 탐방안내소이거나 탐방로 내 짧은 구간으로서 주로 탐방로의 정해진 구간 안에서 발견되는 해설자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제가 한정되어 있고 대상도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편중됐다.⁷⁴⁾

경관연구가 구체적 경관관리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보다는 지역경관 특성의 파악이나 경관가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에 치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⁷⁵⁾

경관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홍보 전략의 부재가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동식물상에 대한 설명이 개략적으로 이뤄졌을 뿐 인문경관자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에 발간한 학술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

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한 점도 중요하다. 행정기관의 특성상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도 집행예정인 제주도 예산서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운영 관리예산으로 102억 3561만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예산은 한라산국립공원 홍보영상 제작, 탐방안내도 리플릿제작, 산악박물관 기획전시, 탐방안내소 VR(가상현실·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체험운영 장비구입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74) 고지희(2017), 「산악형 국립공원 환경해설프로그램개발-한라산영실탐방로를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73쪽.

75) 고동희(1997),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시책의 경관영향평가」, 『환경생태학회지』 11-1, 2쪽.

제2절 경관자원 활용방안

1. 중요경관자원 선정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라산이 갖고 있는 가치인 명산, 보물, 아름다움, 청정⁷⁶⁾ 알리고 드러내서 관리와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찰 및 체험의 주체인 탐방객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관자원 활용의 기초가 되는 자료 수집 및 축적과 분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라산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보고서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산재한 이들 자료를 모아서 ‘한라산 아카이브’로 집대성을 하고 자료 분석을 실시해 기존 연구경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한라산 연구부서가 있지만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부설 한라산연구소가 2001년 1월 만들어진 이후 제주도 한라산연구소-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 한라생태환경연구부-제주도 한라산연구소-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2020. 4)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료보관이나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하 직제를 따로 두거나 산악박물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라산국립공원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수집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경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형특성, 조망특성, 가시권 분석 등으로 경관구조를 분석하고 자연자원경관, 인문자원경관 등의 유형 구분을 통해 경관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폭넓은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경관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중요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중요경관자원을 선정하는 데는 전문가, 지역주민, 탐방객 등이 함께 참여해 경관자원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대표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최고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생에 한번 이상 정상탐방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중요경관 선정에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76) 제주연구원·국립공원공단(2018), 앞의 책, 34-36쪽.

중요경관자원은 자연자원경관, 인문자원경관으로 구분해서 선정한다. 이벤트 등을 거쳐서 ‘한라산 10대 자연경관’, ‘한라산 10대 인문경관’으로 선정된 중요경관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 인식변화 등에 따라 경관자원을 바라보는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요경관자원을 다시 선정한다.

2.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은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동·식물, 지질·지형, 역사·문화, 도전·탐험 등의 분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동물 분야에서는 개체수가 많아서 현장 목격 가능성이 높은 노루를 소재로 한 관찰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식물에서는 불로초의 전설을 간직한 시로미와 남한에서 오직 한라산 백록담에서만 자라는 암매(돌매화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균락을 형성한 구상나무를 활용할 수 있다. 한라구절초, 섬매발톱나무, 한라장구채 등 희귀 고산식물 관찰 및 탐색도 체험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 있다.

지질·지형 분야는 한라산 탄생의 비밀을 풀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백록담 현장에서 화산분화가 일어나면서 한라산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계곡에서는 여러 차례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V자형 지형,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건천(乾川)의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산정화구호에서는 물이 고이는 지질 특성과 고(古)기후 환경의 비밀을 간직한 습지 특성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관음사 주변 제주4·3사건 당시 군·경 토벌대 주둔소를 중심으로 한 유적탐방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영실탐방로의 오백나한전, 존자암 등을 대상으로 한 종교유적 체험이 가능하다. 상산(上山) 방목을 하는 목축문화, 숯을 굽고 표고버섯을 재배한 산림문화를 연결해 일정공간에서 숯가마를 쌓고, 표고버섯을 따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도전·탐험 분야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산악박물관 인공 암벽 클라이밍장을 기초로 해서 계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탐라계곡 일부 구간을 탐사구역으로 지정해 인공 암벽에서 교육을 이수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한다.

탐방로별 공통적으로는 탐방객의 경관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 경관, 인문경관에 대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해설사가 없더라도 QR코드(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 등 경관자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장치를 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영실탐방로 등 일부 안내판에서 QR코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고 정보가 단순 서술형에 그치고 있어서 보강 및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등산 약자를 위해서는 드론(무인항공기)과 AR(증강현실·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등으로 직접 고산지대로 등산하지 않더라도 경관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탐방로 개설

일제강점기 한라산 등산은 관음사에서 머물다 백록담을 오르는 등 관음사코스가 주류를 이뤘다. 이후 4·3사건 때 폐쇄됐던 한라산이 개방된 1950년 후반에는 관음사와 영실·남성대 코스만이 있었는데 5·16도로가 개통되며 성판악코스가, 어리목코스는 스님과 목동들이 다니던 길을 개척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⁷⁷⁾

제주4·3사건이 발발한 1948년부터 한라산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까지 한라산 등산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당시 등산로는 풀과 덩굴에 묻혔다. 현임중(1934년생)의 증언(2020. 5. 11)에 따르면 1952년 제주의 미국공보원(USIS)에서 일하던 중 한라산 금족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락을 받고 관음사를 거쳐 백록담에 향하는 동안 등산로가 없어서 덩굴을 헤치고 올랐다.

현임중은 한라산금족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한라산 정상에 가려는 사람을 안내하면서 등산로를 개척했으며 망치로 직접 백록담 서북벽의 돌계단을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라산 정상까지 최단 시간에 갈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걷기 편한 코스로 탐방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77) 강정효(2006), 「한라산 등반 및 개발사」, 『한라산총서VI』, 제주도·한라산생태연구소, 70-71쪽.

지금도 정상 탐방을 목표로 한 한라산 방문이 많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탐방객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탐사와 암벽등반에 도전하는 계곡 탐방로, 고산평야와 기암괴석을 경험하는 지질 탐방로, 제주4·3사건 당시 군경도별대 주둔소 등을 찾아보는 역사유적 탐방로, 동굴이나 퀘에서 지내는 원시 탐방로, 털진달래와 산철쭉의 꽃밭을 거니는 꽃길 탐방로 등 한라산 경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탐방로 개설이나 조정을 강구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가 획득한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1966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지정에 이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학술조사(자연자원조사 포함)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형·지질, 동·식물 등 자연과학분야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인문분야 연구와 조사는 미진했다.

자연과학분야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활용한 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는 탐방로 안내와 공지사항 위주로 되었고 자연경관자원과 인문경관자원에 대한 내용이 빈약한 실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탐방안내소 해설프로그램, 산악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은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이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자연과학분야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인문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경관자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의 경관자원의 특성을 조사한 이후 자연경관자원과 인문경관자원으로 나눠 유형별로 구분했다.

먼저 자연경관자원은 동·식물, 지형·지질, 계곡, 산정화구호·습지, 오름, 동굴·굴, 폭포·샘, 기상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인문경관자원 분야에서는 시설·도로형, 1차산업형, 종교·제사형, 방어유적형, 기념물형, 풍수지리형, 신화·전설형, 예술·기록형 등 8개 분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훌륭하고,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설·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접목되지 않으면 탐방객이 한라산 가치를 인식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탐방로의 다양한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주요 탐방로에서 확인 가능한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에서는 이들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한라산 10대 경관 등 유형별로 중요경관자원을 선정하고 활용해야 한라산국립공원의 가치가 더

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가치를 높이려면 탐방객이 자료나 영상 등 간접경험으로 접하기보다는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참여해야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몸으로 느껴야 한라산에 대한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탐방객의 보다 다양한 체험을 위해 지형·지질 분야에서는 한라산 탄생과정을 찾아가는 탐색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동·식물 분야에서는 고지대 희귀식물과 노루에 대한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역사·종교 분야 분야에서는 제주 4·3사건과 종교유적을 탐방할 수 있으며 고지대 방목을 하는 목축문화, 숯가마와 표고버섯 재배 등을 활용한 산림문화 등이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출입금지, 탐방로 조정 불가 등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탐방객이 경관자원을 최대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계곡이나 기암괴석 탐방, 동굴이나 케 탐방 등을 위해 새로운 탐방로 개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산악박물관을 ‘한라산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인문학연구센터를 설치해 자연경관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인문경관자원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관자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세밀한 기록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만익(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Ⅳ』,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강문규 장윤식(2013), 「한라산에 남겨진 역사와 문화의 자취」, 『한라산총서축약집 한라산이야기』,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강정효(2003), 『한라산』, 돌베개.
- 강정효(2006), 「한라산 등반 및 개발사」, 『한라산총서Ⅵ』,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고기원 박준범 문덕철(2017), 『화산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 제주도개발공사.
- 국립산림과학원(2017), 『한라산의 고산식물』, 다원디자인프린팅.
- 국립제주박물관(2013), 『한라산』, 디자인나눔.
- 김완병 김찬수(2013), 「한라산이 거느린 동·식물」, 『한라산총서축약집 한라산이야기』,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대한산악연맹(2010), 『등산』, 전국등산학교 교재 제6판, 전국등산학교 표준교재편찬위원회.
- 서귀포시(1994), 『서귀포시의 어제와 오늘』, 서귀포시 문화공보실.
- 신영대(2006), 「제주의 풍수지리와 오름」, 『한라산총서Ⅴ』,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안중기(2006), 「한라산하천의 자연적 특성」, 『한라산총서Ⅷ』,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양송남(2010), 『양송남의 한라산이야기』, 태명인쇄사.
-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광중(2006), 「한라산과 주민생활에 대한 사적 고찰」, 『한라산총서Ⅲ』,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2018), 『4·3역사기록사진집』, 도서출판 각.
- 제주도(1994), 『한국의 영산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제주도(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2019), 『한산 그리고 제주,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중휴사진집』,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문화원(200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나라출판.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은 20세기 제주시』, 정우디피시.

2. 논문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강순석(2018), 「제주도 지질학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한 토론편」, 『제주학회학술논문 발표집』 1.

강정화(2014), 「유산기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남도문화연구』, 26.

고기원 박준범 강봉래 김기표 문덕철(2013), 「제주도의 화산활동」, 『대한지질학회지』, 49-2.

고동희(1997),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시책의 경관영향평가」, 『환경생태학회』 11-1.

고윤정(2013), 「조선시대 한라산유산기와 등람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고윤정(2016), 「한라산 조사연구 현황 및 인문분야 향후과제, 한라산 인문학의 가치를 논하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학술심포지엄』.

고지희(2017), 「산악형 국립공원 환경해설프로그램개발-한라산영실탐방로를 사례로」,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김다영(2019), 「기초 지방자치단체 경관자원 조사체계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김상목(2008), 「한라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 산정을 위한 시·공간 탐방특성 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김상범(2001), 「지역경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관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김치완(2016), 「한라산 인문학 공간 개념에 대한 검토」, 『문화와 융합』 38-6.

김현정(2007),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내 한라산국립공원의 경관분석: 핵심지역의 단편화」,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종주(1999), 「도시공간특성에 따른 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안웅산 홍세선(2017), 「제주도 한라산백록담 일대의 화산활동사」, 『암석학회지』, 26-3.

오세숙 김중순(2013), 「한국 국립공원 형성과정과 환경주의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1.

전중환(2006),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연구』 10.
 정광중(2006),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1.
 주신하 신윤지(2015),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43-3.
 진종현(2019), 「제주관광의 경관이미지 변화와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
 『제주학회 50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금순(2018),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대각사상』 29.
 현용준(1970), 「한라산에 얽힌 전설과 신앙」, 『제주도지』 44.
 현원학(2004),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3. 보고서류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연구원(2018), 「제4기 자연자원조사체계화방안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교통부(2018), 「국토경관자원 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김권수 정상배 고영민 강창완 고정군(2020),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건강성 평가」, 『제19호
 조사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국토교통부(2018), 「국토경관자원 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연구」, 국토교통부.
 문화재청(2016), 「명승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9차)」, 문화재청.
 이숙향(2015), 「국립공원 경관자원 보전관리전략」, 『국립공원연구원 제10회 국립공
 원연구포럼 자료집』,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주도(1985),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
 제주도(2006), 『제주도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16), 『제주도 오름종합계획』, 제주도.
 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2018), 『한라산가치보전천년대계수립보고서』,
 제주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
 제주도 한라산연구소(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도.

4. 웹사이트

국립국어원(<http://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년 4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knps.or.kr/>) 검색일: 2020년 4월 18일.
 국립문화재연구소(<https://www.nrich.go.kr/kor/index.do>) 검색일: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검색일: 2020년 4월 21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ww.jeju.go.kr/wnhcenter/>) 검색일: 2020년 4월 18일.

한라산국립공원 (www.jeju.go.kr/hallasan/) 검색일: 2020년 4월 18일.

5. 신문

『동아일보』, 제주야생노루 포획 2년-적정개체수는 얼마, 2015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준 없는 자연휴식년제-제주오름이 망가진다, 2020년 4월 22일자.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resources and
Utilization plan of Hallasan national park

Jae-Young Im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Hallasan National Park is the most essential area among the three crowns of natural sciences standing for UNESCO Biosphere Reserve, Natural Heritage of the World, and Geo-park entitled by Jejud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and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in Hallasan National Park and classified them by types as well as proceeding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that have been less researched so far than Natural landscape resources. In addition, the Natural and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which can be identified by the trails of Hallasan National Park were categorized and presented. Analysis of landscape resources of each trail will be a fundamental study for utilizing the landscape resources of Hallasan National Park in various way.

The following study has been proceeded to prove the characteristic of landscape resources in Hallasan National Park.

First, this study has divided various landscape resources in Hallasan

National Park into the Natural and Humanity landscapes, then presented by types.

Second, this study has analyzed and looked into the landscape resources that can be identified in each trail such as Eorimok, Yeongsil, Seongpanak, Gwaneumsa, and Donnaeko trails in Hallasan National Park.

This study has divided Natural landscape resources into 8 types: animals & plants, terrain & geology, valley, mountain lake & wetlands, volcanic crater, caves, waterfalls & springs, and weather. This study also has grouped and analyzed resourc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appearance in order to easily show the natural environment of Hallasan national park.

This study has analyzed and imposed the meanings by dividing the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into 8 types: facility · road type, primary industry type, war site type, monument type, religious · ritual type, feng shui type, myth · legend type, art · record type.

As result of applying the landscape resources one by one that are noticeable in main trails by researcher(I), the most abundant Natural and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were found on the Gwaneumsa trail.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landscape resources by type that can be identified on the main trails in order to efficiently guide various landscape resources of Hallasan National Park trails. On the base of these landscape resources it should be selected and utilized important landscape resources such as 'Top 10 Hallasan Landscapes' , so that the value of Hallasan National Park will be increased.

Also,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and value of Hallasan National Park, it is needed for visitors to get participating in directly by seeing, touching, listening rather than involving indirect experiences such as data and videos. Visitors will feel the necessary of nature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on Hallasan Mountain through the

commentary and experience programs.

Commentary or experiential programs including searching for forming process of Hallasan, observing rare plants and roe deer in the highlands, a forest culture, and visiting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are feasible.

It should deviate from control-oriented policies and show an open attitude to the policy which visitors could understand and feel the landscape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develop and operate the various programs. In addition, systematic and detailed documentation should be done in order to accumulate landscape resources.

key words: Nature landscape resources, Humanity landscape resources, Hallasan national park, natural environment, utilization plan, nature conservation.